

전북도,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 '제3축' 도전

전국 첫 지자체 단독 개발계획 제출
 혁신·만성지구 359㎢ 단계 조성
 농생명·기후에너지 특화 금융 구상
 KB금융타운 조성...지정 추진 동력



전북도 제3금융중심지 지정 도전장 금융위에 신청서 제출 절차 돌입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도지사가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 제출과 관련해 기자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북도가 29일 금융위원회에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서를 공식 제출했다.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개발계획을 수립, 금융중심지 지정을 신청한 것은 전국 최초로 국내 금융중심지는 서울 여의도와 부산 문현 두 곳뿐이어서 전북이 제3의 금융거점으로 부상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금융중심지 예정 구역은 전북 혁신도시와 만성지구 일대 총 359㎢다.

도는 이를 기능별로 세분화해 체계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핵심 금융기관이 입주할 중심업무지구 0.14㎢, 연관 산업과 지원 시설을 배치할 지원업무지구 1.27㎢, 금융 인력의 정주 여건을 조성할 배후주거지구 2.18㎢로 구분해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자산운용, 농생명, 기후에너지 등 전북의 강점 분야를 디지털 기술과 결합한 차별화된 금융 모델을 내세웠다. 서울의 종합금융, 부산의 해양·파생금융에 이어 전북 고유의 특화 영역을 구축해 국가 금융산업의 3각 체계를 완성하겠다는 복안이다. 금융위는 상반기 중 평가를 구성해 현장실사를 진행하고, 6월 경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도는 심사 과정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정치권과 경제계, 도민과 긴밀히 협력해 금융중심지 지정의 필요성과 국가적 효과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할 방침이다.

이에 앞서 KB금융그룹은 지난 28일 전북혁신도시에 'KB금융타운'을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KB증권·KB자산운용 전주사무소, KB국민은행 비대면 상담 조직 '스타링크', KB손해보험 광역스마트센터가 들어서며 기존 인력 150여 명에 100여 명이 추가 배치된다. 도는 국내 대표 금융지주사의 투자 결정을 환영하며,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에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정부 차원의 본격적인 지원이 뒤따르는데 금융기관 유치와 집적화를 위한 사업용 설비 설치 자금, 신규 채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이

지급된다. 법인세와 소득세는 3년간 전액, 이후 2년 간 절반이 감면된다. 이러한 지원은 단순한 인센티브를 넘어 금융기관 집적과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이끌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의 금융중심지 추진은 2017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이전 시기로 올라간다.

두 차례에 걸쳐 대통령 공약에 포함되며 기대를 모았으나 실현되지 못했다.

도는 새 정부 출범에 맞춰 지정 신청을 본격화 하기 위해 지난해 초부터 전북연구원과 함께 개발계획 수립에 본격 착수했다. 약 9개월간 관계 부처와 전문가, 유관기관의 자문을 거쳐 초안을 마련했다. 이어 10~11월에는 20일간의 도민 의견 공모, 금융기관·전문가 간담회, 주민 설명회를 순차적으로 열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12월에는 도의회 의견청취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했다.

전북은 그동안 금융도시로서의 기반

을 꾸준히 다졌는데 글로벌 금융기관 16곳을 유치했고 전국 최초로 핀테크육성지구를 지정했다. 이전 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금융 교육 활성화 등 제도적 지원책도 갖췄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북은 세계 3대 연금 중 하나인 약 1,500조 원 규모의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보유한 국내 유일 지역이다"며 "글로벌 금융도시로 도약할 충분한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전북도, 2025년산 논콩 수매 순항...수매율 80%

정부 일정 맞춰 3월31일까지 진행
 추가 3060톤 확보...총 3만3710톤
 전국 평균 69% 웃돌아 수급 안정

전북도가 2025년산 논콩 수매를 정부 일정에 맞춰 차질 없이 정상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추가 물량 확보와 전국 평균을 웃도는 높은 수매율로 논콩 수급 안정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5년산 논콩에 대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전국적으로 약 6만 톤 규모의 수매를 추진하고 있다. 도 역시 정부 일

정에 맞춰 수매를 진행 중이며, 현재까지 모든 절차가 계획대로 원활히 이행되고 있다.

전북은 전국 수매물량 6만톤 가운데 당초 3만1650톤을 배정받아 수매를 추진해 왔으며, 논콩 재배면적 확대에 따른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지속적으로 추가 물량 배정을 건의해 왔다.

그 결과 지난해 11월부터 12월 사이 1~2차에 걸쳐 3,060톤의 추가 수매 물량을 확보했으며, 최종 수매물량은 3만 3,710톤으로 늘어났다.

2026년 1월 말 기준, 전북의 논콩 수매

실적은 2만7,003톤으로 약정 물량 대비 80%의 수매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전국 평균 수매율 69%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전북의 논콩 수매가 계획에 따라 안정적으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매대금은 농식품부 수매자금 운영 일정에 따라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며, 농가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와 aT와의 협의를 지속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수매일정 준수, 수매실적 관리, 추가물량 확보 및 소비확대 대책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주)카리, 새만금 3080억 투자협약 이차전지 부산물 자원화

도·군산·새만금청·농어촌공 MOU
 산단 6공구에 자원순환 모델 구축
 고부가 생산·120명 고용 창출

전북도가 29일 새만금개발청, 군산시, 한국농어촌공사와 함께 (주)카리(대표 김판재)의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내 친환경 고부가 화학제품 제조시설 구축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주)카리는 새만금 산단 6공구 부지 3만 2,808㎡에 2030년까지 총 3,080억 원을 투자해 제조 시설을 건립하고 12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산업 내 자원순환 모델'을 새만금 산단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주)카리는 2023년 설립된 혁신기술 기업으로 이차전지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염폐수와 부산물을 원료로 활용

해 탈염제, 탈취제, 양식장 수질개선제, 비료, 고순도 화학소재 등을 생산하는 친환경 사업모델을 보유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황산나트륨의 고부가가치 자원화 방법' 특허를 출원하며 기술력을 인정받았다.

이 기업은 산단 내 이차전지 입주기업들로부터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 이를 자원화하고, 생산된 탈염제 등을 인근 새만금 농생명용지에 활용하는 구조를 구상하고 있다. 이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다시 산업과 농생명 분야에 재투입하는 순환경제 모델로, 탄소중립과 ESG 경영 실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산단은 2023년 7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된 이후 LS-L&F배터리출연, 퓨처그래프, 전보비엘에스 등 23개 이차전지 관련 기업과 총 9조 4,000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국내 최대 이차전지 소재 집적지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5극 3특 전략 전북특별자치도 역차별 구조"

"통합 광역에 20조...비통합 소외" 공공기관 2차 이전 등 '통합 보상' "균형발전 본질 훼손" 우려 표명



안호영 의원

구조는 비통합 지역의 몫을 줄이는 제로섬 방식으로 균형발전을 하겠다면서 새로운 지역 간 격차를 만드는 것은 정책적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전략'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를 정책적 사각지대로 내모는 역차별 구조"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통합 광역단체에 대규모 재정 혜택을 집중하는 현행 5극 중심 설계는, 이미 특별자치도로 독자적 발전을 선택한 전북과 같은 지역의 위상과 권한을 오히려 격하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정부가 통합 광역자치단체에 최대 20조 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했다"면서 "한정된 균형발전 재원 안에서 통합 지역에 예산을 우선 배분하는

특히 안 의원은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산업 활성화 패키지를 통합 추진의 보상으로 활용하는 정부 방침에 대해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낙후 지역에 우선 배치해 격차를 줄이기 위한 수단"이라며 "이를 통합의 유인책으로 삼는 것은 균형발전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면에서 계속>

강한 경제 전주, 다시 전라도의 수도로!

전주시 출생 축하금 이렇게 달라집니다

2026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지원

지급대상자	2025년	2026년	증 감	
출생 축하금	첫째아	30만원	100만원	+70만원
	둘째아	50만원	100만원	+50만원
	셋째아 이상	100만원	100만원	-
자녀 양육비	셋째아 이상 120만원 (월10만원)	120만원 (월10만원)		

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확정...계파 갈등 격화

윤리위 결정 16일 만 최고위 의결 '당원 계사판' 글 논란 징계 사유 친한계 반발...지도부 사퇴 요구 한동훈 "돌아오겠다" 정치계개 의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9일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했다. 장 대표는 당 안팎의 강력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적인 한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국민의힘은 윤여계인 세력과 계급 반대 탄핵찬성인 한 전 대표 세력간의 내분 양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장동혁 대표가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전 대표 가족들의 '당원 계사판' 비판 글을 이유로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 처분을 내린 것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당 윤리위가 제명 의결을 한 지 16일 만이다. 최보훈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6명의 최고위원과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인이 표결에 참여했다"면서도 "표결 결과



한동훈 전 대표

는 비공개"라고 밝혔다. 친한계인 우재준 청년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 중 밖으로 나와 "회의 끝까지 있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중간에) 나왔다"고 밝혔다. 우 최고위원은 "당무감사위원회에서 조작한 부분을 제외하면 (한동훈) 징계 사유라고 한 건 별 게 없다"며 "그럼에

도 최고 수위 징계인 제명을 한다는 건 결국 탄핵 찬성에 대한 보복이라고 생각한다"며 반발했다. 한 전 대표는 제명 이후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오늘 제명 당했다"며 "저를 제명할 수는 있어도 국민을 위한 좋은 정치의 열망을 꺾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우리가 이 당과 보수의 주인이다"며 "절대 포기하지 말라.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반드시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이원택 "농식품부 전북 최우선 이전 배치해야"

제2차 공공기관 '우선권역' 촉구 피지컬AI 연구원 등 설립 제안



이원택 의원은 29일 "대한민국의 국가균형발전을 완성하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전북특별자치도에 최우선 이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김민석 국무총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경수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향해 "전북 없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미사화, 한식진흥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동물약품기술연구원 등의 이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극 3특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광역 통합에 20조 원 규모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북의 역할과 몫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새만금과 농생명수도, 재생에너지라는 국가적 자산을 동시에 갖춘 전북은 재생에너지·물류·농생·식품·관광·피지컬 AI가 한 공간에서 결합 가능한 유일한 국제 무대"라며 "5개의 초광역권을 연결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전진기지는 전북과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균형발전지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를 제2차 공공기관 이

이원택 의원은 29일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식품부를 전북도에 최우선 이전 배치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기본계획의 명시적 '최우선 이전 권역'으로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신산업 육성을 위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환경공단, 한국지연방공사,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등의 이전과 함께 한국피지컬AI연구원 설립, 4대 피지컬 AI 실증평가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지역문화진흥원 등 50여 개 공공기관이다. 이 의원은 "정부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해 5극 3특 균형성장을 추진하고 있지만, 초광역 통합에 20조 원 규모 지원과 공공기관 이전 논의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전북의 역할과 몫은 여전히 불분명하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새만금과 농생명수도, 재생에너지라는 국가적 자산을 동시에 갖춘 전북은 재생에너지·물류·농생·식품·관광·피지컬 AI가 한 공간에서 결합 가능한 유일한 국제 무대"라며 "5개의 초광역권을 연결하고 세계로 나아가는 전진기지는 전북과 새만금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균형발전지수에 따라 전북특별자치도를 제2차 공공기관 이

전북자치도, 단체관광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 지원

숙박·관광·식사 포함 상품에 지원 내국 20인·외국 10인 이상 체류형 숙박·체험·차량임차비 등 구성

전북도가 도내 숙박과 관광을 포함한 단체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관광진흥법에 따라 여행업으로 등록된 여행사가 전북 도내 숙박, 관광지 방문, 식사를 포함한 여행상품으로 단체관광객을 모객할 경우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로, 체류형 관광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지난해 이 사업에는 96개 여행사가 참여해 전북관광상품을 통해 2만9천 명의 관광객이 전북을 찾는 성과를 거뒀다. 도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지원 범위와 기준을 확대해 체류형 관광

객 유치를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지원 기준은 내국인 20인 이상, 외국인 10인 이상단체가 ▲ 1박 이상 도내 숙박, ▲ 일별 관광지 1개소 이상 방문, ▲ 일별 식사 1식 이상을 충족할 경우 적용된다. 여행사에 지원되는 항목은 ▲숙박비 ▲문화체험비 ▲차량임차비 등으로 구성된다.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1인당 1박 기준 2만 원의 숙박비가 지원되며, 외국인의 경우 2박 시 4만 5천 원, 3박 시 6만 5천 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특히 템플스테이 숙박도 숙박비 지원 대상에 포함돼, 템플스테이 여행상품 운영 시 혜택이 확대된다. 문화체험비는 1회당 1만 원 이상 유료 체험일 경우 회당 5천 원씩 최대 4회까지 지원되며, 전북관광 트레블라운지를 방문하면 문화체험비 항목으로 5만 원이 추가 지급된다. 차량임차비는 1인 1박당 1만 원씩 최



전북도가 도내 숙박과 관광을 포함한 단체여행객을 유치한 여행사를 대상으로 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대 3박까지 지급되며, 여행사의 등록지가 도내일 경우 5만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 교통 연계 관광상품에 대한 추가 지원도 이루어진다. 서해금빛열차 상품 운영 시 차량임차비 35만 원을 지원하며, 석도웨리 입·출항을 이용해 전북에 2박 이상 체류할 경우 1인당 최대 9만 원의 입·출항금을 지급한다. 또한 페리나 크루즈가 도내에 입항하고 관광지 2개소 이상을 방문할 경우 1인당 1만5천 원의 입항금도 지원된다. /장정철 기자

<1면에서 이어서> 안 의원은 '행정체제 개편의 일관성 문제'와 관련 "정부가 전북과 강원을 특별자치도로 지정하며 독자적 발전을 주무는 놓고, 이제 와서 광역자치단체 통합특별시에만 대규모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정책적 자기부정"이라며 "통합특별시의 특례가 특별자치도 법보다 강력하다면 기존 특별자치도 정책은 사실상 무력화된다"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전북의 낮은 재정자립도'와 관련 "재정자립도 23.6%에 불과한

전북에 이러한 정책적 소외는 치명적"이라며 "특별자치도법에 교부세 확보 장치를 명시한 이유로 재정 기반 없이는 진정한 자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의원은 정부와 국회에 △특별자치도를 '특별광역권'으로 지정해 5극에 준하는 재정 인센티브를 보장할 것 △공공기관 2차 이전을 통합의 보상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침을 중단하고 낙후 지역 우선 배치 원칙을 지킬 것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전북특별자치도는 통합

"정부 '특자도 정책' 자기부정" 특자도 '특별광역권' 지정 재정 인센티브 보장 요구 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원에서 밀려나는 지역이 아니다"라며 "차별을 딛고 새로운 균형발전 모델을 개척해 나가는 대한민국의 '아픈손가락'"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5극'만의 잔치를 멈추고, 전북이 당연한 국가 성장의 한 축이 되는 진정한 5극 3특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고창군 공고 제2026 - 27 호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의견청취 공고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국도23호선 『고창 흥덕~부안 행안 도로확장공사』와 관련하여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규정에 의거 도로구역(변경) 결정 및 사업인정을 위한 토지소유자 및 주민·이해관계자 등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8일

고창군수

전북도,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대상 확대

선천성 기능성 단장 증후군 등 75개 질환 추가 지정

전북특별자치도는 2026년 1월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기존보다 75개 확대해 총 1,413개 질환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치료 기간이 길고 의료비 부담이 큰 희귀질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좋은 의료안 전망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확대에 따라 의료비 지원 대상 질환은 2025년 1,338개에서 2026년 1,413개로 증가했으며,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 등 고난도 수술과 장기 치료가 필요한 희귀질환이 새롭게 포함됐다. 선천성 기능성 단장증후군은 장 기능 이상으로 인해 적절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 지속적인 의료 관리와 특수 영양 지원이 필요한 질환으로, 환자와 가족의 의료비 부담이 매우 큰 질환 중 하나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희귀질환 산정특례 등록자 가운데 소득 및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요양급여 본인부담금, 간병비, 특수식이 구입비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희귀질환 산정특례는 장기간 치료



전북도는 이달부터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의 대상 질환을 기존보다 75개 확대해 총 1,413개 질환으로 늘린다고 29일 밝혔다. 가 필요하고 진료비 부담이 큰 질환에 대해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10%로 경감하는 제도로, 이번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정특례와 연계해 환자의 실제 의료비 부담을 한층 더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희귀질환자의 치료 지속성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의료비 지원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으며, 이번 대상 질환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환자가 제도권 내에서 안정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고가의 특수식사와 장기 간병이 필

/김은지 기자

- 사업 개요**
 - 노 선 명 : 국도 23호선
 - 사 업 명 : 고창 흥덕~부안 행안 도로확장공사
 - 위 치 :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 ~ 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 사 업 량 : L = 25.5km, B = 11.5m~19.5m
 - 사업시행자 : 익산지방국토관리청
 - 사 업 기 간 : 도로구역결정고시일 ~ 2029. 12. 31.
-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본 과업은 국도23호선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흥덕면 동사리~부안군 보안면 남포리~부안군 행안면 신기리 지내 4차로 미확장 구간이 병목현상 및 교통체증 발생 구간으로 도로 4차로 확장을 통해 도로이용자의 교통불편 해소 및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 관계서류** : 위치도, 계획평면도, 용지도 및 용지조서 열람장소 비치
- 열람장소 및 열람기간**
 - 열람기간 : 2026. 1. 28. ~ 2026. 2. 11. (14일간)
 - 열람장소 : 고창군 건설과
-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 기간내
 - 제출방법 : 열람 장소에 비치된 양식에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의견서 제출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고창군청 건설과(☎063-560-256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접수 전에 발견하고, 현장에서 해결한다!’

전주시 생활민원 전담 ‘생활민원기동처리반’ 가동

전주시가 시민 안전과 생활 편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만 사항을 찾아 내 신속히 해결하는 전담 조직을 가동키로 했다.

시는 도심 영역 확장과 시민 편의를 위한 공공시설물 증가, 도심 공동화 등에 따른 지속적인 생활민원 증가에 대응하고, 다수의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생활민원 전담 조직인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을 구성·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도시 환경 변화에 따라 생활민원 처리 절차 및 시스템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우범기 전주시장도 최근 간부회의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생활민원 접수부터 처리까지 신속한 대응 체계를 확립할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시는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출범과 발맞춰 생활민원 대응을 ‘현장’으로 전환해 선제 점검·신속 처리·사후관리로 이어지는 실행 중심의 운영체계를 마련해 시민 체감도를 높인다는 구상이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총 3명(행정 6급 1명, 7급 2명)으로 구성되며 △생활민원 선제 대응 △접수 민원 사후관리 △생활

민원 총괄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특히 생활민원기동처리반은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계절별 민원과 행사·축제와 같이 특정 수요가 발생하는 시기별 민원, 다빈도 발생 민원(도로, 교통, 청소 등)에 대해 월별 현장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는 ‘시민 불편 제로화’를 목표로 시민의 안전 및 불편 사항과 직결되는 민원에 대한 사전 점검을 통해 불편 요소를 조기에 발견하고 즉시 조치함으로써 민원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동시에 시는 모든 공무원들이 시민 생활 불편 민원 최소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출장 및 출·퇴근 과정에서 직접 확인한 생활민원을 신고·조치하는 ‘생활민원 신고제’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생활민원 처리 과정에서 단기간 내 처리가 어려워 미처리 민원으로 누적되거나, 단순 종결 처리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관리하는 모니터링 체계도 구축키로 했다.

시는 이번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을 통해 △민원 선제 발굴 및 신속 처리 △처리결과와 점검·사후관리 강화 △부서 간 총괄조정으로 복합민원 대응 속도 향상 △반복·상습 민원 차단 등 시민 체감형 성과를 만들어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혁신도시 'KB금융타운 조성' 결정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 국내외 자산운용사 기대

28일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KB금융그룹 핵심 계열사 KB금융타운 조성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KB금융그룹 핵심 계열사 KB금융타운 조성 결정은 지난 13일 김성주 이사장이 설치한 자산운용사와의 간담회 이후 사례로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KB금융은 올해 KB증권과 KB자

산운용사의 전주사무소 개설 예정이다. 이후 비대면 전문 상담 서비스가 제공된다. 또 KB손해보험 광역 스마트센터 구축한다.

이에 따라 KB금융타운에는 기존 전북혁신도시 내 임직원 150여명을 포함해 추가 100여명 임직원이 상주할 것으로 기대했다.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은 “KB금융그룹 결정을 환영하며 국가균형발전 위한 국내·외 자산운용사들의 결단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명태 기자

전주시,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이용자 모집

30일부터 2월 6일까지 주 소지 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전주시는 오는 30일부터 2월 6일까지 35개 동 주민센터를 통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2026년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신규 이용자 2450명을 공개 모집한다.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은 지역의 특성과 시민의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이용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와 제공 기관을 직접 선택하면 전주시가 바우처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올해 모집 대상 사업은 △아동·청소년 심리지원서비스(시정형) △정신건강 토탈케어서비스 △시각장애안마바우처 등 총 13개 분야이다.

지원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별 특성에 따라 소득 및 연령 기준이 다르게 적용된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모집 인원이 확대돼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시는 접수된 신청자에 대해 오는 2월 말까지 적합 여부를 개별 통지할 예정으로, 최종 선정된 대상자는 오는 3월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자는 국민행복카드 또는 사회서비스 전용 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정부지원금은 소득 구간(등급)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김현옥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지역 사회의 다양한 복지 욕구에 대응하는 맞춤형 사회서비스 제공을 통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만족하는 복지 환경을 조성하겠다”면서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 법령 개정 촉구

“독립운동 기점 1895년 제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전주시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29일 열린 제4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남관우 의장(진북, 인후1·2,금암동)이 대표 발의한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남 의장은 건의안에서 “2차 동학농민혁명이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 이후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독립유공자 서훈 기준이 독립운동의 기점을 1895년으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자들이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전주시의회가 2차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의 독립유공자 서훈 인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했다. 설명했다. 이어 “독립유공자 포상 제도와 연계

적했다.

시의회는 이날 건의안을 통해 △정부의 2차 동학농민혁명 항일무장투쟁 성격에 대한 공식 인정 △참여자가 독립유공자 서훈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 △독립유공자 공적 심사 기준 개선 △동학농민혁명 특별법과 독립유공자 제도 간 연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남관우 의장은 “2차 동학농민혁명은 근대 민족운동이자 항일 독립운동의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역사적 진실과 정의에 부합하는 독립유공자 예우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은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회, 각 정당, 국가보훈부 장관 등에게 송부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겨울철 교통안전을 위한 도로 열선 확충

결빙 취약구간 선제 대응

전주시가 겨울철 폭설에도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결빙 취약구간 도로에 눈과 얼음을 신속하게 녹이는 열선을 확충하고 있다.

시는 겨울철 강설 및 도로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안전한 통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요 결빙 취약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열선 설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시는 사고 위험이 큰 급경사로와 교차로, 보행로, 학교 인접 통학로 등 상습 결

빙 구간을 우선 대상으로 정하고, 도로열선 설치 사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특히 시는 차량 미끄럼 사고와 보행자 낙상 사고가 빈번한 구간을 사전에 분석·선정함으로써 재난 발생 이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하는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사업은 △힐스테이트 열선 설치사업(4억 원) △백동5길 열선 설치사업(2억 원) 등 총 11개 사업으로, 시는 오는 11월까지 총사업비 14억

1000만 원을 투입해 추가 설치를 완료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동절기 이전 결빙 취약구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겨울철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도로 열선이 설치되면 기온 저하 시 자동으로 작동해 노면에 쌓인 눈과 얼음을 신속히 제거함으로써 제설 작업의 공백을 최소화하고, 출·퇴근 시간대 및 야간에도 안정적인 교통흐름을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제설 시 염화칼슘 사용을 줄여 도로시설물 부식과 환경오염을

완화하는 등 친환경적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시는 이번 설치 사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결빙 취약구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단계적인 도로 열선 설치 가능하도록 예산을 꾸준히 확보하고, 설치 효과와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동시에 시는 기존 설치 구간에 대해서는 정기 점검과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병행해 시설의 안정성을 더욱 높여 나갈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향군여성회 제26차 정기총회 개최

신임 강경숙 회장 취임

29일 전주향군여성회 제26차 전주시지향군인회여성회 정기총회가 개최됐다.

제26차 전주향군여성회 정기총회는 제9대 여성회장을 선출하는 뜻깊은 총회로 진행됐다.

행사는 여성회 대의원들과 호국안보보건을 시작으로 ‘의안심의’, ‘회장선거’, ‘이·취임식’ 행사 순으로 이어졌다.

이임 홍훈순 전회장은 ‘23년부터 3년동안 ‘전북 최우수회’, ‘대통령 단체표창’ 등을 수상하며 전주향군여성회를 견인했다.

신임 강경숙 회장은 전회원의 두터운 사랑을 받으며 전주향군여성회 제9대 회장 지휘봉을 이임 홍 전회장에게 이어 받았다.

전주향군여성회는 2026년 소망을 이루는 해가 되길 바라며 향군회원들의 단합을 강조했다.

/김명태 기자

전주시상지청 ‘해양사고대응 위한 협력방안’ 논의

해양기상 활용교육 실시

29일 전주시상지청 신인성 지청장은 해양사고 대응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은 선박 통항 관리와 해양사고 대응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군산광역VTS 실무자들의 해양기상정보 이해도 향상과 기상정보를 현장 상황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군산광역해상교통관제센터(이하 군산광역VTS) 직원을 대상으로 해양사고 예방 및 현장 대응역량 강화 위한 해양기상정보 이해 및 활용 교육을 실시했다.

주요 내용에는 ‘해양기상 기본개

념’, ‘기상정보 종류’, ‘해양기상정보 제공체계’, ‘활용 방법’, ‘해양사고 발생 시 기상정보 활용 사례’ 등을 중심으로 현장 실무 중심으로 진행했다.

특히 이날 해양사고 발생 상황을 가정한 대응 흐름을 공유하며 사고 발생 시 기상정보 제공 및 정보 공유 방식 등 현장 대응을 위한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신인성 전주시상지청장은 “해양기상정보는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라며 “앞으로도 해양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현장 중심의 해양기상정보 활용 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명태 기자

전북경찰청-인권위 신축관서 ‘인권침해요인’ 진단

지난 28일 전북경찰청 김철문 청장은 전대시대 인권위원장과 함께 고속도로순찰대 제12지구대 신축관서 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은 건설 중인 청사에 대한 ‘외부이용자’, ‘근무자’ 관점에서의 인권침해 요인을 중점적으로 진단했다.

주요 점검은 ‘남녀화장실’, ‘조식실’, ‘사무공간관리’, ‘민원인 응대시설점검’, ‘장애인 주차장시설’ 시설 등이다.

인권진단에는 ‘전북청 인권위원회’, ‘시공업체 관계자’, ‘시설 및 인권 담당자’ 등이 참여했다.

주요 점검은 △장애인·노약자·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시설 접근성 △이용자 동선 및 대기 공간의 인권 친화성 △근무자의 안전과 휴식권 보장 여부 △시설 운영과정 등의 잠재적 인권 침해요인 진단이다.

/김명태 기자

전주시의회 제4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



29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27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요 시장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최지은 의원은(덕진,팔복,송전2동)은 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해법으로 ‘전주형 기본소득’ 도입 검토를 제안했다. 최 의원은 “전안군과 신안군은 지역 자원을 활용해 기본소득에 가까운 소득 분배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전주시도 인구 유입과 지역경제 활력을 동시에 살릴 수 있는 전주형 기본소득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소한의 질서와 시민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명권 의원은(송전1동)은 식량안보 위기 시대에 농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농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해 농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도내 다른 시·군과 달리 전주시만 도입을 미루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용철 의원(중앙, 풍남,노송,인후3동)은 “정부의 5급 3특 국가공공 재편을 통한 이 준비되지 않은 지역은 도태될 수밖에 없다”면서 “전주시는 방향성을 잃은 상태에 머물러 있고, 통합을 전제로 조성된 기반시설이 공동 이용되며 부담만 가중되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통합 논의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인 만큼, 통합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독자적인 성장 전략과 도시 노선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학송 의원(조촌, 여의,혁신동)은 전주시 재정 상황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인당 채무가 올해 112만원으로 급증했고, 부채 증가 속도가 예산 증가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며 “부채 이자 상환액이 세입 증가분을 초과해 재정 운용이 한계에 다다랐고, 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방편도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처방이 아닌 구조적 재정개혁과 명확한 채무 관



리 계획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승우 의원(삼천, 효자1동)은 전주시의회에서 추진된 시설공사 과정과 관련해 계약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공사 수행 과정과 이후 계약 체결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 제기 이후 고발과 징계 절차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확대됐고, 법적 판단 과정에서 문제 제기의 정당성이 일부 확인된 만큼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전주시의 도시 브랜드 전략 부재를 문제 삼으며 난립한 캐릭터 정비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부서별 캐릭터 난립으로 정체성이 흐려지고 저작권 미확보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주시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캐릭터 전략 수립 마련을 제안했다.

/정소민 기자



김윤철 의원(중앙,풍남,노송,인후3동)은 공공장소 급주구역 지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풍남문 광장과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 반복되는 상습 주취와 소란 문제로 시민과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상당이나 시설 입소 유도를 넘어 전주시 건전한 읍주문화 환경 조성 조례에 따라 급주구역 지정을 통한



개선과 에너지 지원을 결합한 ‘기후복지 정책’ 전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협력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최명권 의원(송전1동)은 식량안보 위기 시대에 농업의 공공성을 강조하며 농민 지원 확대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전주시 농업예산이 전체 예산의 3%에 불과해 농민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며 “특히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도내 다른 시·군과 달리 전주시만 도입을 미루고 있는 만큼, 조속히 제도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적인 성장 전략과 도시 노선도 분명히 설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학송 의원(조촌, 여의,혁신동)은 전주시 재정 상황과 관련해 강도 높은 재정 혁신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1인당 채무가 올해 112만원으로 급증했고, 부채 증가 속도가 예산 증가를 크게 앞지르고 있다”며 “부채 이자 상환액이 세입 증가분을 초과해 재정 운용이 한계에 다다랐고, 공유재산 매각 등 임시방편도 한계가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시처방이 아닌 구조적 재정개혁과 명확한 채무 관



리 계획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승우 의원(삼천, 효자1동)은 전주시의회에서 추진된 시설공사 과정과 관련해 계약 절차의 적정성과 공정성 문제를 제기했다. 한 의원은 “공사 수행 과정과 이후 계약 체결 경위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문제 제기 이후 고발과 징계 절차까지 이어지며 논란이 확대됐고, 법적 판단 과정에서 문제 제기의 정당성이 일부 확인된 만큼 의회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용정 의원(조촌,여의,혁신동)은 전주시의 도시 브랜드 전략 부재를 문제 삼으며 난립한 캐릭터 정비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부서별 캐릭터 난립으로 정체성이 흐려지고 저작권 미확보와 예산 낭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전주시의 정체성을 대표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하나의 캐릭터 전략 수립 마련을 제안했다.

/정소민 기자

농진청, 유전자 구별 기술 특허 출원 완료

‘탐나는봉’·‘부지화’ 유전체 분석 100% 판별 기술 개발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감귤 ‘탐나는봉’ 유전자 구별 기술을 개발해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탐나는봉’은 한라봉으로 알려진 ‘부지화’ 기반(주심배) 만감류 품종이다. 2014년 국내 품종 보호 등록을 받았으며 미국에서는 2019년 식물특허 등록을 마쳤다.

‘탐나는봉’과 ‘부지화’ 생김새 및 유전적 특징까지 비슷해 일반적인 성분 분석만으로 품종을 구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연구진은 ‘부지화’와 ‘탐나는봉’ 유전체를 전체 유전체 정보 분석법(WGS)을 통해 해독했으며 그 결과 2번 염색체 염기(SNP)와 7번 염색체 염기에서 두 품

종의 유전적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염기서열을 찾았다.

이어 이 염기서열을 이용해 중을 식별할 수 있는 유전자 표지를 만들었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탐나는봉’과 ‘부지화’, ‘부지화’ 기반 품종의 잎과 열매로 ‘탐나는봉’ 품종을 100% 정확하게 구별해 낼 수 있다.

특히 이번 연구는 ‘국산 감귤 품종’ 보호와 해외 유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품종 혼입 문제를 예방할 수 있는 객관적 확인 수단을 확보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농촌진흥청은 표준검사 절차를 마련, 유전자 표지 정보를 기술이전 하는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국내외 유통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 실용화에 나설 계획이다.

‘탐나는봉’을 비롯해 국내에서 육성한 만감류는 총 23품종에 이른다.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품종은 ‘탐나



농촌진흥청은 국내 육성 감귤 ‘탐나는봉’ 유전자 구별 기술을 개발해 국내 특허 출원을 완료했다.

는봉’, ‘윈터프린스’, ‘미래향’ 등 17품종이고,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은 ‘우리향’, ‘달코미’ 등 6

전북농협, 농정협력 워크숍 열어

92개 농축협 힘 모으기로

전북농협(총괄본부장 김성훈)은 29일 지역본부 대강당에서 ‘2026년 사업추진 활성화 및 농정협력을 위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새해를 맞아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지자체와 농협 간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해 지역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전북본부 임직원을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김관영 도지사 농업 관련 부서 팀장들, 그리고 도내 92개 농축협 전무·상무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워크숍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 농업 관련 팀장들이 직접 나서 2026년 주요 사업 계획을 설명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김관영 도지사는 인사말을 통해 전북 농업의 핵심을 책임지고 있는 농축협과 전북도가 함께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촌활력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자고 말했다.

전북본부에서는 2026년도 중점 추진 사업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각 농축협이 실천해야 할 핵심 과제와 협조 사항을 전달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도내 92개 농축협과 함께 전북특별자치도의 농업 정책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이번 워크숍을 시작으로 정례회를 추진해 농업인을 위한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LX ‘2028 완전 경영정상화’ 의지 전달

관리자 워크숍서 경영혁신 가속 각오

지난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은 ‘2026년도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LX, 비상경영 대응 2년, 그간의 성과 및 대응 방향’이라는 주제로 어명소 사장의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외부 전문가 특강, 분임토론, 반부패 청렴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2026년도 관리자 워크숍’에는 ‘본사 임원’, ‘부설기관장’, ‘지역본부장’, ‘지사장’ 등 관리자 2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충남 공주시 국토정보교육원에서 진행됐다.

어명소 사장은 특강에서 “2023년 11월 비상경영체제 선언 후 전 임직원이 총력 대응해 ‘24년 822억원의 적

자에서 ‘25년 526억원(추정)으로 축소해 경영정상화를 향한 터닝포인트를 달성했다”며 “올해에는 330억원 적자, ‘28년에 흑자달성을 통한 완전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자”고 당부했다.

이어 “주력사업인 지적축량이 계속 축소가 예상되므로 소규모 조직 통합·슬림화 등 경영혁신과 토지보상 등 국토관리 중심의 신사업 발굴을 지속해야 한다. 기존 업무방식을 유연하게 개선하고, AI·드론 등 신기술의 적극 활용을 통한 지속적인 혁신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후 진행된 관리자 분임토론에서는 ‘2028년 경영정상화’라는 목표 아래 LX공사의 미래에 대한 고민과 혁신방안을 모색 토론이 이어졌다.

LX공사는 분임토론의 의견을 토대로 “경영혁신 가속화와 국민에게 신뢰받는



지난 22일 한국국토정보공사 어명소 사장은 ‘2026년도 관리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어명소 사장의 주제 특강을 시작으로 진행됐다.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각오했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김성주 이사장 “모두가 누리는 연금” 약속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 앞장

“모두가 누리는 연금 만들겠다” 국민연금공단 김성주 이사장은 29일 신년기자간담회 자리에서 “국민이 주인인 연금에서 모두가 누리는 연금으로 발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방향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면서 그는 “추가적인 ‘모수개혁’, ‘기초연금제도 개선’,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재구조화’, ‘퇴직연금의 공적연금화’ 등 구조개혁 길로 나가야 한다”고 방향을 밝혔다.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이란 연금제도 구조를 유지한 채 주요 변수(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수급개시 연령 등)를 조정하는 개혁방식.

▷모수개혁(parametric Reform)이란 현재 연금 시스템은 유지하며 보험료를 올리거나 연금 받을 시점 늦추는 방식.

아울러 “현재 논의 중인 기초연금 수급기준 개선과 함께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군복무·출산 크레딧 발생시점 적립, 청년 첫 보험료 지원에 활용하는 등 국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금 운용과 관련해 “수익률 제고와 사회적 책임을 함께 추구”를 강조하며 투자다변화 위한 추가인력을 증가해 5대양 6대주 곳곳을 누릴 수 있는 국민연금이 되기 위한 다섯 번째 ‘해외사무소 개설 계획’을 발표했다.

김 이사장은 이를 위해 우수한 경력직 인력을 채용하고 대졸 미경력자를



김성주 이사장

주요 운용역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도 실시하기로 했다.

그는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수익률 제고를 위해 책임투자 원칙

과 ESG 원리 적용도 강화해 유니버설 오피노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고도 설명했다.

또 김 이사장은 “국민의 삶을 돌보는 복지서비스를 확대해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구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발달장애인”, “치매노인”을 대상으로 한 공공신택 사업을 본격 추진해 신청하지 않아도 때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신청부주의에 의한 불편을 해소하는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한편 김 이사장은 “전북혁신도시 금융생태계 조성을 통해 자산운용 중심지로 발전하도록 돕고,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활용해 공공기관을 선도하는 인공지능(AI) 대표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비전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김 이사장은 “이번 간담회는 그 비전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방향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 개선과 행정 혁신을 통해 ‘모두가 누리는 연금’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R&D 306개 과제 공모

1049억원 투입 비수도권 14개 시도 대상 컨소시엄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 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전세희, 이하 전북중기청)에 따르면, 중기부는 2026년도 지역혁신 선도기업육성(R&D)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비수도권 14개 시도 중소기업 전용 R&D로, 지역 주력사업 기반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2025년부터 추진해 왔다.

공모는 총 1049억원(국비 734억원, 지방비 315억원) 규모로 306개 신규 과제를 선정한다.

특히 올해는 지역 내 산학연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컨소시엄 형태의 지원을 크게 늘린다.

사업은 두 가지 내역으로 운영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산학연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갖춘 선도기업을 중심으로 공급망 내 중소기업 간 협업과 산학협력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선정과제는 2년간 최대 14억원을 지원하며, 컨소시엄에는 중소기업 2개사와 대학 참여가 필수적이다.

반면,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잠재력이 있는 기업의 기술개발 역량을 높여 지역 선도기업으로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2년간 최대 4억원을 지원한다.

올해 공모는 지역의 다양한 기술 수

요를 폭넓게 반영하기 위해 지원품목을 전면 재검토했다.

지자체와 전문가와 함께 지원범위를 재구성해 제조, 모빌리티, 바이오, 방산·우주, 에너지, 문화관광 6대 분야와 11개 세부산업을 중심으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한다.

또 지원품목 수는 2025년 342개에서 2026년 684개로 확대된다.

기술개발 역량을 갖춘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기준도 보완했다.

기존의 매출액, 매출증가율 요건 외에 R&D 집약도(매출 대비 R&D 비중)를 추가 기준으로 마련해 R&D 집약도가 5% 이상이면 매출액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R&D 이후 성과가 실제 사업화로 이어지도록 연계도 강화된다. ‘주력산업 생태계 구축’ 내역은 ‘레전드 50+’ 연계를 통해 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고, ‘지역기업 역량강화’ 내역은 일정 기간 R&D 수행 후 지역특화산업 육성사업 등 비R&D 지원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2월 11일부터 3월 3일 18시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www.smttech.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세부내용은 1월 30일부터 중기부 누리집(www.mss.go.kr) 또는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을 활용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배수개선사업 95지구 신규 선정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

농림축산식품부는 배수개선사업 95지구(기본조사 52, 신규착수 43)를 신규로 선정했다.

▷배수개선사업 : 지대가 낮거나 하천변에 위치해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농경지에 배수장과 배수문을 설치하고 배수로를 정비해 침수피해를 예방하는 사업

지난해 연 강수량(1325.6mm)의 64%가 6-9월 집중(852.3mm)해 내렸고, 시

간당 100mm 이상의 기록적인 강수가 내리는 지역이 다수 발생하며 평균 기온 상승과 해수 온도 상승 등으로 강수 강도 및 집중호우 발생빈도도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 선제적인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농식품부는 배수시설 부족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하기 쉬운 저지대 농경지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26년 배수개선사업 예산을 전년 대비 대폭 증액(5102억원 → 6436, 증 1334(26.1%↑))로, 293지구(신규 43지구) 31천ha(신규 4458ha)의 농경지에 사업을 추진한다.

또 올해 말까지 54지구 5천ha 배수개

선 공사를 완료해 침수 피해로부터 안전한 영농기반 구축을 도모할 계획이다.

선정된 신규착수 43지구(농경지 4458ha)는 총 5469억원 사업비를 투입해 농업인이 침수 피해 걱정 없이 영농에 종사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규 43지구 중 30지구(농경지 3298ha)는 논농 및 시설하우스 등 타 작물 재배지역으로 논에서의 타 작물 재배기반 확대 등 전략작물 육성 및 식량자급률 제고 효과도 기대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전국

상습침수 농경지 320천ha 중 ‘25년까지 181천ha 배수시설을 정비·완료했으며 ‘26년 31천ha를 추진하고, 향후 108천ha는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에 따라 지속해서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논 지역에 타 작물 재배가 집약된 지역의 침수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강우양상, 경제성 분석 등을 토대로 30년 빈도 이상(시설하우스 밀집 지역은 50년 이상) 강화된 설계빈도를 적용해 농업기반시설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농협-한국새농민 전북도회, 이사회 개최

농협중앙회 전북본부(총괄본부장 김성훈)와 한국새농민 전북특별자치도회(회장 한강희)는 29일 2026 전북새농민회 이사회를 개최했다.

이사회는 △2026년도 주요 사업 추진 방향 △새농민회 조직 활성화 방안 △농심전심 운동 가치 전파를 위한 새농민회 역할 △기타 농업 현안 등을 중심으로 30년 빈도 이상(시설하우스 밀집 지역은 50년 이상) 강화된 설계빈도를 적용해 농업기반시설의 재해 대응력을 높이고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농심전심 운동이 농업인의 마음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현장 중심 운동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한국

새농민 전북도회가 앞장서서 모범 농업 실천 사례를 확산하며 지역사회와 함께 해 청년·후계농업인 육성을 위해 멘토링 강화 등 새농민회의 경험 및 역량을 펼쳐 보여줬다고 했다.

김성훈 총괄본부장은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으로 인해 우리 농업·농촌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농촌지역을 선도하는 모범 농업인단체인 한국새농민 전북도회가 많이 힘써주고 계셔 든든하고 감사하다”며 “농업인 권익 신장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우리 전북농협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교육청, 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한다

26년도 폐교재산 관리 계획 수립...활용·매각 중심 방향 전환

도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가 증가하면서 폐교활용 방안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이를 위해 전북교육청은 교육지원청 및 폐교 TF팀의 의견을 수렴하고 폐교 재산관리활용위원회 심의·자문을 거쳤다. 도내 폐교(26.3.1.자 포함)는 총 366개며, 이중 관리중인 폐교는 자체활용 34개, 매각 추진 25개 등 총 59개다. 이번 계획은 폐교를 단순 보존·관리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지역 여건과 수요를 반영한 활용·매각 중심으로 방향을 전환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다. 또 학교복합시설(교육부), 지방소멸 대응기금(행정안전부) 등 지자체와 연계한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

해 폐교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거점 공간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기본방향은 학교 교육활동 공간 및 교육기관 설립 등 자체활용이 우선이다. 매각에 있어서는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지자체에 우선 매각하고, 지자체 매입 의사가 없을 시에는 법인·비법인사단도 공개경쟁입찰을 통해 매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교육·사회복지·문화·체육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다양한 주체가 폐교 활용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폐교 활용, 매각 추진 과정에서는 사전 단계부터 지자체와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지역사회와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폐교 역사관 조성도 함께 추진한다. 폐교 매각 및 활용 과정에서 학교의 기억이 단절되지 않도록 지역별 폐교



도내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가 증가하면서 폐교활용 방안이 마련됐다. 전북교육청은 '2026년도 폐교재산 활용·관리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

중 1개소 또는 자체활용 중인 폐교 내 일부 공간에 폐교의 연혁, 사진, 졸업앨범, 교육자료 등 기록물을 전시하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폐교 증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

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폐교 매입 주체 범위 확대를 통해 폐교가 지역의 부담이 아닌 지역의 중심으로 전환되는 출발점이자 거점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민주시민·인성교육지원단 공개 모집

전북교육청, 학교교육과정 실천지원...내달 6일까지 신청

전북교육청은 민주시민 양성 위한 '민주시민·인성교육지원단'을 공개 모집한다. 최근 민주시민교육은 체험과 실천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북교육청은 '정답'을 찾는 교육에서 '의견'을 나누는 교육을 기본 방향으로 삼았다. 이와 함께 학교교육과정 실천 지원에 방점을 두고 민주시민·인성교육지원단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밀착형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교원 역량 강화 △콘텐츠·교수학습 자료 개발 △맞춤형 컨설팅 등 3가

지 활동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특히 학교별 상황에 적합한 토론 및 참여형 수업 전문성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지원, 평화 시민성과 미디어 시민성 등 최근의 이슈를 반영한 콘텐츠 개발, 민주시민교육 교육과정 재구성 지원을 위한 컨설팅을 통해 교실 속 민주시민교육 우수 실천 사례를 발굴·보급하는 역할을 한다. 지원단으로 활동을 희망하는 도내 교원은 내달 6일까지 지원서를 작성해 업무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이후 선정심사위원회 통한 최종 25명 내외의 선정에 오는 3월부터 1년간 운영될 예정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유아교육 정책사업 설명회 개최

정책이해도제고현장소통강화

전북교육청은 29일 공사립유치원장을 대상으로 '2026 전북유아교육 정책사업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유아교육과정 분야 주요사업 △유아교육진흥원 주요사업 △2026년 유아교육 및 유보통합 공모사업 등 주요 정책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현장의 관심이 높은 5세 이음교

육, 디지털 기반 유치원 운영지원, 유아 안전 강화 및 안전교육 내실화, 한울타리 유치원 운영 지원 등 올해 추진되는 유아교육 공모사업을 안내해 많은 유치원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자 했다. 최재일 유초등특수교육과장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유아교육 정책에 대한 현장의 이해를 높이고, 유치원 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이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대, 피지컬 AI 기반 지역혁신 '앞장'

RISE 포럼 개최...기업기관 공동연구 등 성과 공유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RISE사업단은 지역 기업·기관과 추진한 공동연구, 기술이전, 기업지원 등의 성과를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협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Co-breath, So-bright: RISE 성과 공유·미래협력 포럼'을 다가오는 2월 3일에 전주 데미오호텔에서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지역 기업과 스타트업, 공공기관,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RISE사업 추진 성과를 확인

하고, 피지컬 AI(Physical AI)를 중심으로 한 지역혁신 전략과 대학-지역 간 공동 실행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로 마련된다. 행사장에서는 RISE사업 단위과제 및 프로그램 성과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전시 부스와 피지컬 AI 관련 기업 전시도 함께 운영된다. 포럼은 박승대 피지컬AI사업기획단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RISE사업단 트랙별 성과보고와 2차년도 발전계획 발표, 피지컬 AI 기반 지역혁신을 주제로 한 패널 토의 등으로 구성된다. 특히 오전에는 우수기관·기업 유공자 시상과 성과 공유 중심의 공식 행사가 진행되

며, 오후에는 미래협력 포럼과 자유 네트워킹을 통해 산·학·연·관 간 실질적인 협력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주대학교 한동욱 RISE사업단장은 "이번 포럼을 통해 지역과 함께 호흡(Co-breath)하고, 더 밝은(So-bright) 미래를 함께 여는 RISE 모델을 제시하며, 지역혁신 플랫폼의 허브로서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전주대학교 RISE사업단은 지역 수요에 기반한 교육·연구·산학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해 지역사회와 동반 성장을 실현하는데 주력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교육청, 유아 정서·심리발달 지원사업 성과 확산

유아 정서·심리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 개최

29일 전북교육청은 '25년 유아 정서·심리 지원 사업 성과공유회'를 개최했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유아 정서·심리 지원 사업을 운영해 오고 있다.

운영은 디지털기기 사용 연령 하향화 등으로 정서·심리 지원이 필요한 유아가 증가하면서, 조기 치료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됐다. 사업은 유아의 발달 및 행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유치원 및 어린이집으로 찾아가는 집단상담과 소아정신과 상담기관 등의 전문기관을 연계 개별상담 두 가지로 운영됐다.

지난해 집단상담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160개 학급, 2,19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고, 개별상담은 200명의 유아가 각 10회씩 치료지원을 받았다. 프로그램 지원 후 검사 결과 사회성 발달 94.9%, 정서 발달 97.9%, 자기조절 능 97.9%로 긍정적인 평가를 나타났다. 또 교사와 학부모 대상 상담과 연수

등을 운영해 유아를 이해하기 위한 지원체제도 구축했다. 이는 교육관이 협력해 정서·심리발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를 조기에 발견·개입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북교육청은 올해도 유아 정서·심리 지원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군산대, 김 실내양식 기술 고도화 위한 워크숍

국립군산대학교 수산과학연구소(소장 김주형)는 29일 육상 김 실내양식 기술의 고도화를 목표로, 광합성 및 수 환경 모니터링을 주제로 한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광합성 특성과 물 환경 요인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김 양식 생산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졌다. 해조류의 광합성은 양식 생산성과 탄소

흡수 능력과 직결되는 핵심 요소로, 물 환경 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립군산대 수산과학연구소 관계자는 "최근 해조류 산업과 연구 전반에 대한 학계 및 산업계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에 따라 해조류 양식 및 활용 기술 발전을 위한 관련 워크숍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한랭질환 예방수칙

생활습관	실내환경	외출 전	외출 후
<p>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 하기</p>	<p>실내적정온도와 습도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p>	<p>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운 경우 야외활동 자제)</p>	<p>따뜻한 옷(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등)입기, 무리한 운동은 하지 않기</p>

“겨울방학 놀이터는 여기” 익산 다이노키즈월드 재개장

익산시가 다이노키즈월드를 새 단장해 겨울방학 아이들을 맞을 준비를 마쳤다.

익산시는 오는 2월 3일부터 다이노키즈월드 실내의 놀이체험시설을 재개장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재개장의 가장 큰 변화는 놀이시설 구성이다. 기존 공룡 조형물이 있던 공간에 ‘스텝업’, ‘천국의 계단’, ‘파라볼릭 슬라이드’ 등 체험형 놀이기구 3종을 새롭게 설치했다. 놀이기구 설치뿐만 아니라 자판기 등 편의시설을 보완해 보호자와 아이 모두가 편안하게 머물 수 있는 공간으로 환경을 개선했다.

시는 재개장을 기념해 2월 3일부터 28일까지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이노키즈월드 실내의 놀이시설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개인 사화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뒤 매표소에 인증하면, 익스트림 슬라이드 1회 무료 이용권을 받을 수 있다.

놀이시설은 안전한 운영을 위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50분씩 하루 6회 운영되며, 놀이기구마다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시 관계자는 “재개장 이후 이용객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안전 관리에 최우선을 두고 운영할 계획”이라며 “다이노키즈월드가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며 신체활동을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이자, 가족이 함께 찾는 체험 명소로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 2월 9일까지 신청

정읍시가 고추 자급률 하락과 기상이변에 따른 생산량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추 생산 기반을 튼튼히 다지기 위해 ‘고추 비가림 재배시설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관수시설과 자동개폐기 등 환경관리시설을 포함한 고추 비가림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를 돕는 것이 핵심이다. 지원 비율은 보조금 50%, 자부담 50%로 설정돼 농가의 초기 투자 비용 부담을 대폭 낮췄다.

신청 대상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 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이다. 신청자는 반드시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농가는 시설 완공 후 5년간 견고추용 고추 재배 목적으로 해당 시설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의무 사용 기간 중 연차 장애를 방지하거나 가격 하락으로 재배를 포기해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일시적으로 다른 작물 재배가 가능하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인은 정읍시청 누리집에서 자세한 공고 내용을 확인한 뒤, 사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춰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강용원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앞으로도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농업 행정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읍농협 사랑의 생필품 꾸러미 100세트 기탁·취약계층 지원

정읍농협이 지난 28일 설 명절을 맞아 지역 내 한부모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1000만 원 상당의 생필품 꾸러미 100개를 정읍시에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된 꾸러미는 가구당 10만원 상당으로, 명절 생활에 필수적인 소고기, 떡국을 비롯해 화장지, 라면 등 실용적인 물품들이 포함됐다. 기탁된 물품은 정읍농협 사랑나눔봉사자가 해당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할 계획이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지원이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란다”며 “시에서도 소외되는 이웃이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복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남영 조합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경제·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물품을 준비했다”며 “향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KTX익산역 ‘광역교통 허브’ 도약

도시성장·안전·주거 교통 4대 핵심 분야 행정력 결집

호남 철도의 관문인 익산역이 고속철도와 버스,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을 한 곳에서 누리는 ‘미래형 복합환승센터’로의 탈바꿈을 본격화한다.

익산시는 29일 익산역 일원에서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와 함께 ‘복합환승센터 혁신모델 컨설팅 지원사업’ 현장답사를 실시했다.

이번 답사는 지난달 익산시가 국토부 대광위의 혁신모델 컨설팅 공모에 최

종 선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장에는 대광위 관계자와 국토연구원, 민간 전문가 등이 대거 참석해 익산역 철도시설과 환승 체계, 주변 도시재생 사업 현황을 꼼꼼히 점검했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는 △역 일대 이용현황 △환승 연계 핵심시설 배치 △환승시설 핵심 점도(앵커테넌트) 유치 방안 △공공 정책 사업과의 연계성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시는 전문가들의 날카로운 분석을 바탕으로 기존의 단순 환승 기능을 넘어 주거·의료·문화·관광이 결합된 ‘지역 맞춤형 복합모델’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또한 시는 이번 컨설팅 사업과 함께 총사업비 480억 원이 투입되는 KTX익

산역 시설개선(선상역사 증축) 사업도 속도감 있게 병행 추진한다.

시는 이미 국가 예산에 설계비 18억 원이 반영된 만큼, 복합환승센터 조성 과 연계해 익산역을 전북권 광역 교통의 중추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핵심 동력으로 키운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현장 답사는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중요한 단계”라며 “국가 차원의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사업성을 완벽히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익산역을 전국적인 모범 복합환승 거점으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 지역 MICE 거점으로

군산시, 예비국제회의지구 연계글로벌도약박차

전북특별자치도 유일의 전시·컨벤션 센터인 군산새만금컨벤션센터(GSCO)가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마이스(MICE) 거점으로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29일 군산시에 따르면, 관광공사가 발표한 2025년 ‘GSCO’의 운영 실적은 7억 5천만 원으로 전년 대비 증가했

으며 △전시·이벤트 사업 2억 2,000만 원 △컨벤션 대관 사업 3억 7,000만 원 △부대시설 임대 등 1억 4,000만 원 등 전 분야에서 고른 성장세를 보였다.

실적 증가와 함께 전체 방문객 수 역시 2024년 11만 1,322명에서 2025년 12만 7,669명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역 문화·관광 자원과 연계한 소비 활성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확대에 이바지한 것으로 평가된다.

또한 ‘GSCO’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비 확보에도 눈에 띄는 성과를 보이

면서 2025년과 2026년 연속 ‘예비 국제회의지구’ 선정을 통한 국비 총 1억 5,000만 원을 확보하기도 했다.

이현철 군산시 일자리경제과장은 “새만금의 광활한 인프라와 선유도 및 근대 문화유산을 결합한 군산만의 독특한 콘텐츠는 세계 시장에서도 충분한 경쟁력이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군산이 명실상부한 ‘국제적 마이스 거점 도시’로 도약하는 데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청년창업 전 주기 지원

시작~정착까지 ‘완주형 지원’…지역 생태계 강화

익산시가 창업을 꿈꾸는 청년들이 머물고, 뿌리내리는 청년창업 도시 조성에 나선다.

익산시는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통해 총 274개 기업을 발굴·지원했으며, 지난해 기준 기업의 사업 지속률은 89.5%에 달한다고 29일 밝혔다. 청년 창업기업의 지역 안착 가능성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성과로 평가된다.

투자 성과도 이어지고 있다. 2024년 3개 기업이 총 5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정부의 민간투자 주도형 창업지원

사업인 ‘팁스(TIPS)’에 선정된 바 있다. 지난해에도 4개 기업이 4억 원의 투자 유치와 팁스 추천권을 확보해 익산 청년 창업 경쟁력을 입증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청년창업 정책의 방향을 ‘성과와 정착’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익산시 청년창업 지원의 핵심은 단계별 맞춤 지원 구조다. 창업 초기에는 교육과 컨설팅, 사업화 자금을 통해 진입 장벽을 낮춘다. 예비·초기 창업자에게는 맞춤형 컨설팅과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창업 7년 이내 기업에는 임대료 지원으로 고정비 부담을 덜어준다.

또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익산형 위드 로컬 지원사업’을 추진해, 평균 3,000만 원 규모의 사업비 지원과 함께 온라인

판로 연계를 통해 초기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

성장 단계에 접어든 기업에는 투자 연계와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한다. 시는 지속 가능한 청년창업 환경 조성을 위해 지역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청년창업 거점 공간인 청년시청 3층 특별자치도와 협약을 통해 청년시청 5층에 스타트업 라운지 ‘키움공간’을 개소한다. 또 지역 경제 산업인 농산물·식품 분야와 청년창업을 직접 연결하기 위해 전문가와 협업을 확대한다. 시 관계자는 “창업 시작부터 사업화, 정착까지 한 흐름으로 연결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창업도시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관광지점 방문객 32만 명 ‘경중’

2025년 방문객 196만 명 전년 대비 30만 명 이상 ↑

정읍시 2025년 주요 관광지점 방문객 수가 2024년 대비 30만 명 이상 증가하며 지역 관광 전반에 활기가 돌고 있다.

29일 시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주요 관광지점 20개소의 총 방문객 수는 약 196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164만여 명 대비 32만 명가량 늘어난 수치다.

관광객 증가를 견인한 핵심 지점은 내장산국립공원과 구절초지방정원이었다. 내장산국립공원은 전년 대비 약 15만 명 이상 증가하며 가장 가파른 성장세를 보였다. 구절초지방정원 역시 전년 대비 13만 명 이상 늘어난 46만 1948명의 방문객을 기록하며 정읍을 대표하는 계절형·체류형 관광지로서의 경쟁력을 증명했다. 이러한 성과는 주요 관광지지의 안정적인 운영과 계절별 맞춤형 콘텐츠 제공, 방문객 관리 체계 개선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시는 지난 23일,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지정에서 한때 제외됐던 구절초지방



정원이 재등록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관광 통계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업무부서부터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업무를 위탁 수행하고 있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국립공원공단 간의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이번 방문객 증가는 정읍 관광자원의 매력과 함께 통계 체계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온 행정적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앞으로도 신뢰도 높은 데이터를 바탕으로 체류형 관광도시로의 전환을 차근차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우리마을 인턴십’ 본격 운영

2월 1일~10월 31일까지

군산시가 추진중인 장애 학생의 지역사회 기반 현장실습 프로그램 ‘우리마을 인턴십’이 오는 2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본격 운영된다.

2025년에 이어 올해 사업 2년 차가 된 ‘우리마을 인턴십 사업’은 교육발달특구(2차) 시범사업의 하나로, 지역 내 다양한 사업장을 발굴해 특수학교, 발달장애 대안학교 및 평생교육시설 등의 재학생을 연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15일까지 참여 희망 기업과 학생을 모집했으며, 총 10개 기업·12명의 학생이 신청했다.

지난 26일 6개 기업과 9명의 학생이 최종 매칭됐으며,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인턴십이 시작될 예정

이다.

참여기업은 △주식회사 행복함니다 △주식회사 청기와 △사회적협동조합 드림허브군산에프에스 △말뚝커피 군산점 △농업회사법인 산돌팜 △오유커피이다.

인턴십은 멘토-멘티제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1명의 멘토가 1~3명의 멘티를 맡아 주 15시간의 근무를 함께하며 현장 중심의 직무 교육과 정서적 지원을 동시에 제공한다. 멘토에게는 월 70만 원, 멘티(참여 학생)에게는 월 80만 원의 수당이 지급된다.

시는 ‘우리마을 인턴십’은 단순한 직무체계를 넘어, 참여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사회 진입의 디딤돌이 되고, 기업에게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계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현울 익산시장, 한파 속 어르신 안전 살핀다

경로당 난방·안전 상태 확인

익산시가 연일 이어지는 강추위 속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29일 지역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이용 불편 사항을 청취하고, 한파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 전반을 살폈다.

이날 정 시장은 경로당 난방시설 작동 여부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상태를 직접 확인하고, 한파 대응 물품 비치 현황도 함께 점검했다.

아울러 한파 시 행동 요령과 건강관리 수칙을 안내하고, 건의 사항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다. 또한 관계 부서에 경로당 난방 관리와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하며, 겨울

철 어르신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시는 앞서 지난해 11월 한파 대비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해 난방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했으며, 지역 경로당 45개소에 대한 보수·수리를 완료하는 등 선제 대응을 이어오고 있다.

앞으로도 고령층 등 한파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겨울철 재난 예방과 시민 안전 확보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정현울 시장은 “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일상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겨울철에도 어르신들이 따뜻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점검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산림재난 대응체계 본격 가동

군산시는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대응단 근무자 50명을 선발하는 등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선발된 산림재난대응단은 계절별 산림재난 발생 특성에 맞춰 연중 산림재난 대응 업무를 수행하며 ‘가을철 산불 조심 기간’인 12월 15일까지 근무하게 된다.

특히 ‘봄철 산불 조심 기간’에는 산불감시원 50명과 함께 산불 진화·진

블 정리·산불 예방 순찰 및 계도 활동 등 산불 대응 업무를 집중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시는 이번 활동을 통해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응이 가능하도록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여름철에는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사태 취약지역 예찰 및 현장 대응 활동을 실시하고, 평상시에는 산림병해충 방제 등 산림 보육을 위한 현장 업무도 병행한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읍면동지사협 민간위원장 위촉식

군산시가 27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위촉식을 29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제5기 위원회의 임기(24년 1월 1일~25년 12월 31일)가 만료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을 대표해 민간위원장 27명에게 위촉장을 전달하고, 소개기 위해 마련됐다.

제6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당면직 위원 읍·면·동장 27명을 포함

해 이·통장,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부녀회장, 지역 복지기관 종사자, 자원봉사 단체 회원, 기타 지역 주민 등 총 43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강인준 군산시장은 “지역사회 사회안전망의 최일선에 있는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맞춤형 복지를 통해 안전하고 행복한 군산시를 만드는 데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 연내 준공

고창군, 체류형 관광 도시 도약 가속화 토지문제 원만히 해결



고창군이 산림휴양·레포츠·체험콘텐츠를 결합한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 조성을 본격화하며 체류형 관광도시 도약에 속도를 낸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산림휴양테마파크 토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 되면서 아산면 용계리 일원 56ha 부지에 구름골 자연휴양림과 산림레포츠 시설이 올해말까지 건립된다. 목재문화체험장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단계별 사업이 추진된다.

구름골 자연휴양림에는 숙박시설, 숲속야영장, 산책로 등 자연친화형 휴양 시설이 들어서며, 가족 단위 방문객의 수요를 만족시키는 사계절 힐링 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또한 로프·네트·레이를 활용한 산림레포츠 시설을 도입해 체험형 콘텐츠를 강화하는 한편, 목공 체험과 전시 기

능을 갖춘 목재문화체험장을 구축해 복합 산림문화공간으로 확장해 나간 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차별화된 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해 방문객 만족도를 높인다는 전략이다.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가 완공되면 운곡삼사르습지, 선운산도립공원, 고인돌유적지 등 인근 자원과 연계된

체류형 관광벨트가 형성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된다.

김종신 고창군 산림복지과장은 “구름골 산림휴양테마파크를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고품격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겠다”며 “고창을 대표하는 산림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경로당 밀반찬 배달 지원

도드람·목우촌 협력

김제시는 29일 ‘정성반찬! 건강 밥상! 경로당 밀반찬 배달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민·관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역 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 지원과 안정적인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도드람김제FMC와 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이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협약에 따라 협력기관은 밀반찬 조리에 필요한 돈육 및 육가공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시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 지원을 통해 경로당 이용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노인일자리 창출과 경로당 이용 어르신 대상 맞춤형 돌봄 실현은 물론, 지역사회 상생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함께 거두고 있다.

시는 2025년 시범사업을 통해 경로당을 대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보다 많은 경로당과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생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협약은 지역 기업과 지자체가 함께 어르신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협력 사례”라며, “앞으로도 민·관 협력을 통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윤봉기 기자

부안 부안읍자치센터 김혜영씨 ‘수필미학’ 올해의 작품상 수상

부안군 부안읍자치센터 문예창작반 수강생 김혜영씨가 ‘수필미학’이 선정한 올해의 작품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통권 50호를 발간한 수필미학은 수필 창작과 비평을 병행하는 수필문학 전문 문예지로 수필의 미학과 이론을 지속적으로 탐색하며 수필의 예술적 깊이와 비평적 지평을 확장해 온 계간지다.

수필미학 작품상은 2025년 한 해 동안 수필미학에 수록된 전국 작가들의 작품 가운데 작품성과 주제 의식, 미학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상으로 매년 동시대 수필 문학의 성과를 가늠하는 의미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작품상으로 선정된 김혜영씨의 수필 ‘까치밥’은 다문화 이주 여성의 삶을 까치밥에 빗대어 그려낸 작품으로 일상의 장면 속에서 소외된 삶의 곁을 담담하게 포착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연이나 계절의 시선을 넘어 타인의 삶 곁에 머무는 태도의 윤리와 수필의 미학을 함께 성취한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김혜영씨는 현재 솔바람소리문학회 회장으로 활동하며 지역 문화 활성화와 문학 저변 확대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수필미학 작품상 수상작은 오는 5월 출간될 예정이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블로거기자단 발대식 뉴미디어 채널 활용 홍보 ↑

고창군이 29일 군청 2층 회의실에서 2026년 고창군 블로거기자단 발대식을 열고 공식 활동의 시작을 알렸다.

올해 블로거기자단 모집에는 전국 각지에서 많은 관심이 이어졌으며, 심사를 거쳐 글·사진과 영상 기자로 구성된 총 21명이 선정됐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기자증 수여와 함께 기자단의 역할과 활동 방향에 대한 안내가 이뤄졌다. 이어 기자단은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을 갖고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 각오와 포부를 나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기자단은 오는 연말까지 군정 소식과 문화·관광 행사, 일상 속 고창 이야기를 블로그 글과 영상 콘텐츠로 통해 전달하며, 고창군의 다양한 매력을 널리 알릴 예정이다.

특히 올해도 영상 콘텐츠 제작 역량을 갖춘 영상기자단 6명을 선발해, 유튜브 쇼츠나 인스타그램 릴스 등 뉴미디어 채널을 활용한 홍보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블로거기자단의 창의적인 콘텐츠가 고창을 알리는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며 “현장의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군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홍보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고창군, 공공부문 일자리사업 추진... “지역경제 활력”

고창군이 연초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으로 156명이 일하면서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다.

29일 고창군에 따르면 현재 공공부문 일자리 사업으로 모두 4분야에 군민 156명이 채용돼 일하고 있다.

공공근로 사업의 경우, 1차 모집에 다수의 군민이 지원해 공공일자리에 대한 높은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서 고창군은 올해 취업 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지원을 위해 공공근로 채용인원을 90명까지 확대했다. 또 어르신들을 비롯해 어려운 생활환경의 소득저변 해소를 위해 근무시간 등을 늘리면서 이에따른 소득 보전도 이뤄지고 있다.

공공근로사업의 경우, 임금은 1일 8만 2560원을 적용하며 70세 미만은 1주 30시간 이내, 70세 이상은 1주 15시간 이내, 청년대상사업은 1주 40시간 이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공공일자리 사업은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군민의 생계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중요한 민생 정책이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수소연료전지차 보급 추진

총 59대 민간 구매 지원 전년 대비 규모 대폭 확대

부안군은 대기환경 개선 및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2026년 수소연료전지차 보급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수소 승용차 50대와 수소 고상버스 9대 등 총 59대의 민간 구매를 지원할 예정으로, 전년 대비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해 친환경차 보급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원 규모는 1대당 수소승

용차는 3450만원, 수소고상버스는 3억 8000만원이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60일 전부터 연속해 부안군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법인 또는 단체이다.

사업 신청은 오는 2월 2일부터 시작되며 예산소진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구매자는 수소 승용차 판매사에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제조·판매사를 통해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신청 접수하면 된다.

또 군은 수소전기차 보급 확대에 맞춰 취·충전 인프라의 안정적 운영에도 주력하고 있다.

현재 군민들이 불편 없이 친환경 차량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내 수소충전소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는 작년보다 보급 물량을 대폭 늘려 군민들의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자 한다”며 “수소도시 조성을 위해 수소 기반 교통수단 확대에 청정 부안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행복콜택시’ 2월 운행 개시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 총 198개 마을 확대 운영

김제시는 대중교통 이동이 어려운 농촌·외곽 지역 주민의 이동 부담을 덜기 위한 행복콜택시를 오는 2월부터 종전 17개 읍면동 158개 마을에서 19개 읍면동 198개 마을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행복콜 택시’는 버스 승강장에서 400m 이상 떨어져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대중교통 노선이 없는 마

을을 대상으로 제공되는 공공형 교통복지 서비스다.

이용요금은 마을회관으로부터 버스정류장까지 100원, 읍면동 행정복지센터까지 1,000원을 지불하면 이용할 수 있다. 상반기 운행은 2월 1일부터 시작해 7월 31일까지이며 일요일을 제외한 모든 요일에 운행한다.

시는 앞서 지난 26일 행복콜택시 운행차 42명을 선정하고 이용객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친절하고 안전한 교통서비스 제공을 강조하며 운행차 준수사항을 전

달한 바 있다.

행복콜은 택시 운전자에게 직접 연락해 이용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 지역 운행자의 연락처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청 교통행정과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행복콜택시 운행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 취약지역 맞춤형 교통서비스로 거점시설 간 접근성을 제고함은 물론 주민들의 일상 이동의 불편을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윤봉기 기자

부안군, 반려동물 놀이터 조기 개장

1월·8월 제의 연중 운영 힐링 공간 자리매김 기대

부안군이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반려동물 놀이터를 예년보다 조기 개장한다.

반려동물 놀이터는 부안군 부안읍 선운리 3-6번지(부안다목적체육센터 부지 내)에 위치해 있으며, 올해는 1월과 8월을 제외한 총 10개월간 운영될 예정으로, 지난해보다 운영 기간을 4개월 확대해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보다 오랜 기간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기 개장을 통해 이른 봄부터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넓고 개방된 공간에서 반려견이 자유롭게 뛰어놀 수 있어 이용 만족도가 높아지고, 지역 반려인들의 발길도 이어질 전망이다.

안전하고 쾌적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맹견은 출입이 제한되며, 이용객



들은 배변수거 등 기본적인 반려동물 관리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지난해 놀이터 주변에 유채를 파종함에 따라, 오는 4월에는 노란 유채꽃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경관도 함께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반려동물 놀이터가 단순한 놀이 공간이 아닌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

대된다.

권오범 축산과장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보다 오랜 기간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시기를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반려인과 반려동물 간의 교감을 높이고, 이를 통해 성숙한 반려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토지·주택 특성 합동 점검

공시가격 정확성 강화

김제시는 지난 28일 개별공시지가와 개별주택가격 산정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민원지적과와 세정과가 함께한 토지·주택 특성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공시가격은 재산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핵심 행정자료로 토지와 주택 특성이 정확하게 반영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따라 양 부서 담당자들이 참여한 협의를 통해 토지와 주택 간 특성

적용 기준을 점검하고, 불일치 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용도지역, 고저, 형상, 도로 점면 등 공시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점검하고, 일단지 적용 기준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시는 앞으로도 부서 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공시가격 산정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공시제도를 운영해 나갈 방침이다.

/김제=윤봉기 기자

고창군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자 모집

고창군보건소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영양개선 및 건강증진을 위해 운영하는 영양플러스 사업의 신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만 6세(72개월)미만 영유아, 임신부, 출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하며, 영양 위험요인이 있는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대상자 특성에 따른 보충식품 패키지를 정기적으로 제공 받을 수 있다. 전문 영양사

의 영양교육 및 1:1 맞춤형 영양상담을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영양상태 개선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2026년부터는 대상자 선정기준이 변경된다. 기존 건강보험료 납부 기준을 적용했으나, 올해부터 재산소득 기준으로 변경돼 보다 실질적인 취약계층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보건소 소장은 “앞으로도 대상자 중심의 맞춤형 영양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김제 마루뎀’ 발대식

김제시는 2026년 제3차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 ‘김제 마루뎀’ 발대식을 29일 오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정성주 시장과 선발된 김제마루뎀 단원, 관계자 등 25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아동학대 및 아동 안전 등 아동친화정책에 관심이 많은 육아맘들로 지난해 공개모집을 통해 자발적으로 서포터즈단 활동을 희망했으며, 발대식을 시작으로 아동학대 캠페인 참여, 유해환경 점검 등의 활동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제 마루뎀의 위촉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며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으로 육아맘들과의 정보 공유 및 소통을 통해 아동친화와 부합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제안하고 아동친화적 지역문화 확산과 홍보활동을 하게 된다.

발대식 1부는 △아동친화도시 홍보영상 시청 △유치장 수여 △마루뎀 임원 선출이 진행됐다. 2부는 아동친화도시 전문 강사를 통해 △아동권리교육 △아동친화도시 우수 사례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이 보장되는 아동친화도시 발전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서포터즈단의 역할에 큰 기대를 갖고 있다”며 “새롭게 출발하는 마루뎀을 응원하고 행정력을 집중해 아동친화정책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동과 시민의 행복도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할 것을 기원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윤봉기 기자

남원시, 저출생 정면 돌파 '투트랙 지원'

'청년주거·출산급여' 정착기반 강화 월세·전세·내집마련 생애주기 지원 1인 소상공·농어업인 출산급여 신설

남원시가 청년의 주거 안정과 출산 지원을 연계한 저출생 극복 시책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으로 인한 소득 단절을 완화해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는 구조적 요인에 대응하고,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시는 '2026년 청년 주거정책 지원사업'을 통해 월세-전세-내집마련으로 이어지는 생애 단계별 주거 지원을 추진한다.

올해부터 주거 지원 방식이 개선된다. 기존 반기별로 지원하던 월세 지원과 연 1회 지원하던 내집마련 지원사업을 분기별로 지원한다. 아울러 내집마

련 지원사업은 대상별 특성을 반영한 세부 주거면적 기준을 마련했다.

출산과 양육을 앞둔 신혼부부의 경우 주거전용면적을 100㎡까지 완화해 가족 친화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는 주거전용면적 제한을 두지 않아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주거 지원 정책을 추진한다.

월세 지원은 19~45세 무주택 청년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한다. 보증금 1억 원 이하, 월세 60만 원 이하에 거주할 경우 월 최대 16만 원을 지원한다. 전세로 주거 수준을 높이려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금융권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경우, 대출잔액의 최대 3%, 연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주택을 구입한 청년과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내집마련 지원사업을 통해 대출잔액 6,400만원

한도 내에서 연 최대 3% 이자를 지원한다. 신청은 월세 지원은 28일부터, 전세는 21일부터 각각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된다. 내집마련 지원사업은 2월 중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처음으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대상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18~39세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으로, 본인 출산 시 출산급여 90만 원, 배우자 출산 시 출산급여 8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한 경우에 해당하며, 자녀의 출생신고를 남원시 관내 주소로 완료해야 한다. 출산급여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에 한해 지원되며, 출산급여 추가 지원금은 출산일 이전 18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소득 활동을 증빙한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이 신청할 수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의료·요양·주거 통합돌봄 본격 추진

7억6천 투입 노인·장애인 등 대상 병원동행·재택의료센터 등 운영

순창군은 올해부터 지역 내 돌봄이 필요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의료, 요양, 주거, 일상 돌봄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인, 장애인 등 노쇠, 질병, 사고 등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운 주민 약 1만여명을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총 7억 6천만원이 투입된다.

앞서 군은 지난해 9월 보건복지부 주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에 선정된 후, 유관 부서 간담회, 민간 협력기관과의 실무 협의, 현장 중심

의 사전 준비 과정을 거쳐 사업 실행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번 통합돌봄사업은 ▲지역 특화서비스 ▲의료·요양·보건 연계서비스 ▲장애인 연계서비스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며, 다양한 군민의 상황과 복합적인 돌봄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군은 이를 통해 개별 욕구에 따른 통합적 돌봄을 제공하고, 군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안정된 일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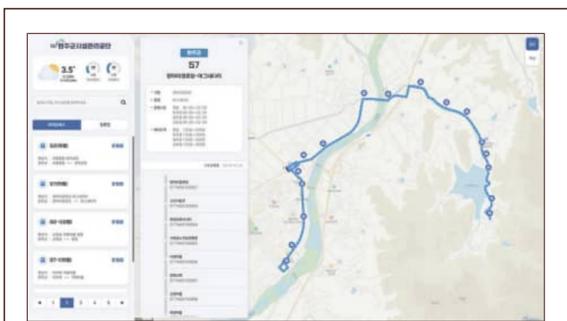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지역 특화서비스 분야에는 주거환경 개선, 영양 도시락 지원, 가사지원, 병원동행 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군은 특히 농촌 지역 특성상 공급

이 부족한 서비스들을 보완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 간호, 돌봄 연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수급자에게는 재가의료급여를 통해 식사, 이동, 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퇴원 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지자체 최초 AI 초정밀 라이브버스 도입

GPS 10배 정확도 초정밀 센서 QR도움미로 어르신 이용 지원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전국 지자체 최초로 에이아이(AI) 기반의 '초정밀 라이브 버스' 서비스를 2월부터 전격 도입하며 대중교통 혁신에 나선다.

'초정밀 라이브 버스'는 초정밀 위치 정보에 날씨, 실시간 교통 상황, 노선별 특성 등 방대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해 교통정보를 실시간 제공하는 지역 맞춤형 교통 서비스다.

공단은 지난해 12월부터 모든 마을버스에 세계 최고 수준의 초정밀 측위 센서를 장착해 완주군의 지형과 교통 패턴에 최적화하도록 인공지능 학습을 진행해 교통정보의 정확도를 극대화했다. 공단은 서비스 시험 운영 결과,

국도교통부 버스정보 성능평가 기준 최상급인 정확도 95%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기존 GPS 대비 10배 이상 정밀한 버스 이동 정보를 제공해 주민의 버스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용 방법은 전용 누리집(wanju.livebus.ai)을 통해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언제 어디서나 버스 위치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사용이 서툰 어르신들을 위해 정류장마다 QR코드를 부착해 사진찍듯이 스캔 한 번으로 현 위치의 버스 정보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주요 환승 정류장에는 '시니어 버스 안내 도우미'를 배치해 서비스 이용에서 소외되는 군민이 없도록 교통 복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에너지 복지' 향상 복실마을 도시가스 공급 완료

순창군이 지난해 말 순창읍 복실마을을 대상으로 한 도시가스 공급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에너지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에너지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촌 지역의 난방비 부담을 덜고,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사용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총 사업비 6억 6,490만 원이 투입됐으며, 2023년 9월 공사에 착공해 2026년 1월 초에 준공 및 공급을 완료했다. 이를 통해 복실마을 48세대가 도시가스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는 입상관과 입입배관 설치에 따른 자부담 비용이 발생하지만, 순창군은 세대당 최대 1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 비용의 50%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급을 통해 난방비 절감은 물론, 기존 연료의 교체 및 관리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되고, 친환경 에너지 사용 확대를 통해 탄소 배출 저감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 '완주형 1만원 임대주택' 공약

국영석 완주군수 출마예정자는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 사람도 소외 없는 현미경 시대 2호 공약으로 '완주형 공공 임대주택 조성'을 통해 주거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국 출마예정자는 ▲폐교·유휴부지를 활용한 완주 활력 타운 조성 ▲완주형 1만 원 임대주택 조성 ▲원주민과 이주민이 하나 되는 완주 주거혁신 협의체 구성 ▲주거·일자리·돌봄이 결합 된 복합 주거 단지 조성 등을 통해 완주형 공공주거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화산·비봉·운주·고산·동상·경천면을 중심으로 폐교를 활용한 귀농·귀촌 체류형 주거 공간을 조성할 예정이다. 기존 폐교 시설은 리모델링을 통해 스마트 팜 교육장, 농기구 공유소 등을 설치하고 운동장은 전원주택형 모듈러 주택 건립을 통해 집 걱정 없이 청년의 꿈을 키우는 완주형 활력 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봉동·용진읍은 소년 인근 신규주거지를 활용해 산업단지 근로자, 신혼부부 전용 '청년 근로자 행복주택'을 조성한다.

삼례·이서면은 주거 공간과 창업 공간이 결합 된 구도심 빈집 재생형 임대주택 제공을 통해 청년·창업가에게는 기회를, 구도심에는 활력을 불어넣는다.

소양·상관·구이면은 마을회관 리모델링형 공동 주거 공간 조성을 통해 독거 어르신에게 생애를 함께하는 노인 주거 복지를 실현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인공지능산업 위원회 공식 출범

도내 군단위 중 선제 조례 제정 민관학 참여시 정책 심의·자문

순창군이 인공지능(AI)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순창군 인공지능산업 위원회'를 29일 공식 출범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이번 위원회 구성은 지난해 12월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 내 군 단위 지자체 중 가장 선제적으로 '순창군 인공지능(AI)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며 다져온 제도적 기반 위에서 추진됐다.

위원회는 순창군수를 당연직 위원장으로 하고, 인공지능 관련 업무 당

당 과장, 순창군 의회 의원, 그리고 인공지능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순창군이 나아갈 AI 산업 정책의 기본계획 수립부터 산업 생태계 조성,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맡는다.

위원회 출범에 따라 군은 민간 전문가와의 협업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기술이 실질적인 군민 삶의 질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이돈승 前 특보 '문화로 꽃피는 완주' 구상 발표

문화선도산단 창작클러스터 조성 '공동체' 시2조로 민간 주도 강화

완주군수 출마를 선언한 이돈승 이재명 당대표 특보(전)가 29일, 문화 분야 비전으로 "문화로 꽃피는 완주, 세계로 향하는 문화도시"를 제시했다.

이 출마예정자는 완주를 문화산업과 공동체문화, K-컬처를 아우르는 문화정책 선도 지역으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우선 전국 최초로 지정된 문화선도산단을 중심으로 산단 내 문화창작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문화벤처기업 유치와 청년 창작자 참여를 통해 문화산업 기반의 일자리 창출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2025년 종료된 법정 문화도시 사업을 '공동체문화도시 시2조'로 이어

가 민간 주도의 문화생태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행정 중심이 아닌 지역 주민과 민간이 축적해 온 문화 역량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문화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재명 정부의 문화산업 육성 기조와 발맞춰 'K-컬처 지역거점 도시 완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K-컬처 공공창작소와 국제교류 지원센터 유치, 완주형 콘텐츠 IP 개발, 로컬문화 자산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정부와 연계한 '완주 K-컬처 거점 육성 프로젝트'를 본격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밖에도 가변형 대형 공연장 건립, 세계적 성악가 고성현 교수와 연계한 예술학교 유치 등 문화·관광 분야 공약을 함께 제시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202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품종 조달·신동진

남원시는 2027년산 공공비축미 매입품종으로 '조달'과 '신동진' 2개 품목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남원시는 지난 21일 남원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공비축미 품종선정 심의회를 열고, 2026년과 동일한 두 품종을 2027년산 매입 대상 품종으로 확정했다.

조달은 생육기간이 짧아 조기 수확이 가능해 남원 산간부(운봉, 인월, 아영, 산내)에서 재배하기에 유리한 품종이다. 신동진은 당초 2027년부터

공공비축미 매입 품종에서 제외될 예정이었으나, 농림축산식품부가 정부보급종 공급을 지속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방침이 변경됐다. 특히 신동진은 남원 지역에서 오랫동안 재배되어 온 대표 품종으로, 농가와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다는 점이 선정 배경으로 작용했다.

시는 벼 재배 농가의 품종 전환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출하 여건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삼봉 생활문화 거점 '고운삼봉도서관' 준공

120억 투입 신도시 복합문화시설 7월 개관 목표 BF 인증 등 준비

완주군이 삼봉신도시를 생활문화 중심지로 한 단계 끌어올릴 고운삼봉도서관을 완공했다.

29일 유희태 완주군수를 비롯한 완주군의회 유익식 의장과, 윤수봉, 권오안 도의원, 지역 기관, 사회단체 관계자 및 지역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해 도서관 준공을 함께 축하했다.

고운삼봉도서관은 연면적 2,969㎡,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됐으며, 총 12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됐다. 도서관은 독서 기능은 물론 돌봄과 행정 서비스까지 한 공간에서 제공하는 복합문화시설로, 주민 생활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주요 시설로는 ▲1층 삼봉민원센터, 공부방, 커뮤니티 공간 ▲2층 어린이자료실, 공동육아나눔터 ▲3층 종합자료



완주군은 29일 고운삼봉도서관 준공식을 열어 유희태 군수를 비롯 유익식 의장, 윤수봉, 권오안 도의원 및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완공을 축하했다. <사진=완주군>

실, 청소년자료실, 다목적강당, 동아리실, 청소년자료실, 다목적강당, 동아리실 등이 마련돼 세대별 이용 수요를 폭넓게 담아냈다.

고운삼봉도서관은 준공식 이후 오는 7월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완주군은 개관 전까지 BF(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본인증 취득, 개관 도서 확충과

이 부족한 서비스들을 보완하고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장기요양 대상자를 위한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운영된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된 전문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 간호, 돌봄 연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한다.

아울러, 의료기관에서 퇴원하는 의료수급자에게는 재가의료급여를 통해 식사, 이동, 생활 지원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퇴원 후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 포함된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시 지역 통합돌봄 강화...수행기관 협약 체결

법시행 앞두고 5곳과 업무협약 돌봄 필요 가구 맞춤형 서비스 제공

남원시가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남원시는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앞서 통합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28일 분야별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돌봄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단순한 일회성 지원을 넘어 ▲방문재활운동 ▲식사지원 ▲병원동

행 ▲주거환경개선 등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4대 핵심 분야의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참여한 5개 수행기관(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전북도회, 남원시니어클럽, 사회적협동조합 섬세한, 살림노인복지센터, (유)보은건설)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방문재활운동, 식사지원, 병원동행, 주거환경개선 등 서비스를 전담하게 된다.

남원시는 이번 협약을 통해 초고령 사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제공으로 더 가까이에서 돌봄을 실천



남원시는 통합 돌봄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민관 협력 강화를 위해 28일 분야별 수행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하고,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함께 피어나는 남원형 통합돌봄 모델을 완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 토양가축분뇨 검사 무료지원

임실군 농업기술센터는 작물의 안정적인 생육과 지속 가능한 농업환경 조성을 위해 토양검사와 가축분뇨 퇴·액비 부숙도 검사를 연중 무료로 지원하고 있다.

토양검사는 퇴비나 비료를 살포하지 않은 상태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으며, 검사결과를 통해 적절한 비료사용으로 작물의 생육을 증진하고, 경영비를 줄일 수 있다.

토양 시료는 필지당 5개 지점에서 겹흙을 1~2cm 걷어낸 뒤 눈·눈은 15cm, 과수는 30cm 깊이에서 총 500g을 채취해 골고루 혼합한다. 혼합한 시료는 봉투에 담아 지면, 면직, 재배 작물, 성명, 전화번호, 주소 등을 기재한 후 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임실군 신평면 대리로 154-5)로 제출하면 된다.

검사결과는 pH(산도), EC(전기전도도), 유기물, 유효인산, 유효규산, 치환성 양이온(K·Ca·Mg), 석회소요량 등을 고려해 작물별로 필요한 비료 사용량을 나타낸 '토양 비료사용 처방서'로 발급된다. 이를 활용하면 토양 개량과 함께 비료 과다 사용을 줄여 작물 생육이 향상 뿐 아니라 생산비 절감을 동시에 하여 실질적인 농가 혜택에 기여할 수 있다.

아울러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퇴·액비 부숙도 검사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규모 대상농가는 6개월에 1회, 신고규모 대상농가는 연1회 퇴비부숙도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가축분뇨 부숙도 검사를 희망하는 농가는 혼합된 퇴비(500g)를 시료봉투에 액비(500mL)를 물병에 담아 농가명, 연락처, 주소, 축사 주소, 축사 면적을 기재한 후 임실군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종합검정실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보건소, 보건소통의 날 운영

진안군보건소는 지난 28일 올해 첫 '함께하는 보건소통의 날' 자리를 마련하여 보건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직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회의는 △1차 보건의로 서비스 제공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정신건강 증진 사업 △통합건강 증진사업 △치매예방 관리사업 등 향후 보건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신건강 임상 심리 전문가를 초빙해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을 조기 발견하고 적절한 서비스 연계를 위한 정신건강 평가 방법 교육을 실시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장수군 행복콜 직원일동,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행복콜 직원일동(회장 전일수)이 지난 28일 조손가정 또는 가정위탁아동 가구 지원을 위해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장수군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금 기탁은 28일 소통회의실에서 진행됐으며, 기탁된 성금은 지역 내 조손가정 또는 가정위탁아동 가구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전일수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도움이 필요한 아이들과 가정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봉사나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싶다"고 말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장수군, 호남 최초 고분 보호돔 조성

삼봉리 고분군, 보존·활용 동시...역사문화공간 도약

장수군은 지난 26일 장계면 삼봉리 고분군 제5호분일원을 대상으로 '장수 삼봉리 고분군 보호돔 건축설계·전시물 제작설치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하고, 보호돔(유적발굴관) 조성 사업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착수보고회에는 자문위원으로 이재운 교수와 광장근 교수가 참석했으며, 행정에서는 최희식 장수군수와 이정우 부군수 등이 함께해 사업 추진 방향과 설계 개요를 공유하고, 유적 보존과 전시·활용 방안에 대한 자문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사업은 '보존은 철저히, 관광은 생생하게'라는 모티브 아래 호남권 최초로 고분 보호돔을 제작·설치하는 사업이다.

특히 장수군 지역의 역사문화자산을 단순히 보존하는 데서 나아가 군민과 방문객이 직접 보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자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고분 보호돔 조감도

보호돔은 고분 유구의 원형 보존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설계된다. 설계안에는 유적과 매장주체부가 있는 지반에 구조기둥을 설치하지 않는 공법을 적용해 문화유산 훼손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반영됐다.

또한 철골 트러스 막구조 등을 활용해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한편, 관람 동선과 시야를 고려한 공간 구성

으로 관람시설로서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시설 내부에는 영상부스, 무인카페부스, 관람부스, 전망부스, 관람회랑 등이 조성되며, 발굴작업공간과 전시·교육 체험물 제작·설치까지 포함해 관람 편의성과 체험 요소를 동시에 갖춘 복합 문화공간으로 조성된다.

/장수=최진수 기자

무주군, '행복콜택시' 운영 방식 전면 개선

차량 보유은행 가능 상황 따라 이용 횟수 차등 산정 공정성 확보

무주군은 대중교통 소외지역 주민의 실질적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영 중인 '행복콜택시'의 운영 방식을 오는 2월 부터 전면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행복콜택시 이용 횟수를 일괄 적용하면서 발생했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부정 사용을 차단해 사업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이용자의 차량 보유 여부, 실제 운행 가능 여부 등을 반영해 행복콜택시 이용 횟수를 차등 산정할 방침이다.

무주군에 따르면 차량 미보유자는 월 6회, 차량 보유자는 월 2회로 조정된다. 다만, 차량을 보유하고 있으나 장기 고장, 면허 취소·정지, 건강상 이유 등으로 실제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차량 미은행 소명서'를 제출하면 월 6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양도, 대여 등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부정 사용 금지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으며, 부정 사용 적발 시에는 단계별 제재 기준을 적용한다. 1회 적발 시 6개월, 2회 12개월, 3회 적발 시 영구 이용(배차) 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임재영 무주군청 산업경제과장은 "행복콜택시는 농촌·교통 취약 지역 주민

과 장애인·고령층 등 교통약자를 위한 공공형 교통서비스로 100만원 부담하면 목적지까지 이동할 수 있다"라며 "경제적 부담이 적고 편리한 서비스인 만큼 공정하게 운영돼야 한다고 판단해 개선 조치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실질적으로 교통이 불편한 주민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행복콜택시'는 마을회관과 가까운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가 300미터 이상 떨어진 65개 마을을 대상으로 운행한다.

/무주=최희호 기자

'진안고원행복상품권' 설맛이 20% 특별할인

카드형 결제 시 10% 추가 캐시백 구매해도 월 60만원 일시 상향

카드형 결제 시 10% 추가 캐시백 혜택, 구매해도 월 60만 원으로 일시 상향 진안군이 민중 최대 명절인 설을 맞아 2월 1일부터 한 달간 '진안고원 행복상품권'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한다.

이번 특별할인은 고물가를 위축된 소비 심리를 회복하고 명절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2월 한 달간 지류형과 카드형 모두 기본 10% 선할인이 적용된다. 여기에

카드형 상품권으로 결제할 경우에는 결제액의 10%를 추가로 돌려받는 '후 캐시백' 제도를 병행 운영한다. 예를 들어 카드형 60만 원을 총전해 특별할인 기간 동안 사용하면 6만 원 선할인에 6만 원 캐시백까지 더해져 총 12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구매 한도 역시 기존 월 5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일시 상향되어 명절 선물을 준비하거나 제수용품을 구매하는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용 편의성도 대폭 강화된다. 그동안

안 농협과 우체국에서만 가능했던 카드형 상품권 발급처를 관내 새마을금고와 신협까지 확대했다. 다만,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경우 시스템 설정에 따라 2월 둘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급이 가능하다.

진안고원 행복상품권은 만 19세 이상이면 전국에서 누구나 구매 가능하다. 지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가맹점 현황은 지역사랑상품권 앱 'chak(착)' 또는 진안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애향장학회 '지역교육 산실'...나눔열기 후끈

30여년간 2,200여명에 40억 지원

공공 일어붙은 한과 속에서도 지역 인재를 향한 따뜻한 나눔의 온기가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임실군 애향장학회(이사장 심민)에 따르면 지난 27일, 관촌면 지역발전협의회(회장 김종섭)에서 300만원, 임실 개인택시 단위조합(조합장 왕동열)이 200만원의 애향장학금을 각각 기탁하며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한 뜻깊은 나눔에 동참했다.

관촌면 지역발전협의회는 이번 기탁을 포함해 현재까지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애향장학회에 전달하는 등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한 실천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임실 개인택시 단위조합 역시 2021년부터 매년 장학금 기탁을 이어

오며 지역사회에 모범이 되고 있다. 현재까지 누적 기탁액은 총 1,450만원에 달하며, 군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 제공은 물론 지역사회 공헌 활동에도 적극 앞장서고 있다.

1995년 설립 애향장학회는 이듬해인 1996년 제1회 장학생 선발을 시작으로 지난 30여년간 지역 인재육성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현재까지 2,200여명의 학생에게 총 40억원에 달하는 장학금을 지급하며,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해 왔다.

특히, 지역사회와 각계각층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바탕으로 안정적인 장학기금을 조성하며 장학사업을 위한 탄탄한 재정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2024년에는 1억 3천만 원, 2025년에

는 1억 2천 7백만원의 장학금이 기탁되는 등 매년 꾸준한 후원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 발전을 뒷받침하는 핵심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재정적 기반을 토대로 애향장학회는 성적우수 및 복지장학금 지급을 비롯해 봉황인재학당 운영, 임실군 서울 장학숙 운영, 진로·진학 컨설팅 등 장학사업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실교육지원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힘쓰고 있다.

군 애향장학회는 매년 임실군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선발·지원하고 있으며, 올해 역시 2월중 대학생 90명, 고등학생 30명 등 총 120명의 애향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임실엔치즈클러스터, 효자 노릇 톡톡

지역유기공업체참여 정기총회

사단법인 임실엔치즈클러스터는 지난 27일 임실치즈테마파크 지정 환출에서 이사장인 심민 군수, 관내 유기공업체 대표 등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년년 새해,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25년도 사업계획 및 '26년도 사업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하였으며, 임실N치즈 브랜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마케팅 방안을 비롯하여, 임실엔치즈클러스터의 장기적인 운영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임실치즈산업에서 지역 내 통합 물류와 판매를 책임지고 있는 임실엔치즈클러스터는 지난해 역대 최대인 89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19% 성장을 이끌어, 지역 유기공업체 소속 증대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유기공 업체들에

게 필요한 세제, 박스태이프 등 소모품도 수시로 지원하고, 전국을 다니며 판촉행사를 열어 유기공업체들은 생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판매 전략을 펼치고 있다.

임실군은 현재 3%수준에 머물고 있는 임실N치즈의 국내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임실엔치즈클러스터, 임실치즈엔식품연구소, 임실치즈농협, 목장형 유기공업체 등 관내 유업체들과 함께 영국 황실에서 즐겨먹는 저지종 숙성치즈, 그리고 성인 다이어트와 뼈 건강에 좋은 무가당 요거트 등 임실형 기능성 특화 품목을 생산해서 고품격 프리미엄 유제품으로의 도약에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현재 관내에 33마리의 저지종 젖소가 보급되었는데, 2029년까지 500마리까지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윤동수 지부장, 제5대 장수군 공무직지부장 당선

안정적노사협력기대



전국공공운수노조 장수군 공무직지부는 지난 27일 군민회관에서 제5대 지부장 선거를 실시했다고 밝혔

다. 이날 선거 결과 윤동수(사진) 현 지부장이 전체 투표자의 90%에 달하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제5대 지부장으로 당선되며 연임에 성공했다. 윤동수 당선자는 그동안 장수군과의

임금 협상과 단체 교섭을 원만하게 이끌어 공무직 노동자의 실질적인 처우 개선과 근무 여건 향상에 기여해 왔다.

윤동수 지부장은 "다시 한번 선택해 주신 조합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낯은 자세로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무직 노동자의 정당한 권의 보호와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지부장은 "이광섭 지부장이 이끄는 공무원노조 장수군지부와 긴밀히 협력해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건강한 노사 관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2026~2027 진안방문의 해' 본격 추진

진안군은 2026년 '빨간 말의 해'를 맞아 관내 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6~2027 진안 방문의 해'를 본격 추진한다.

말은 예로부터 도약과 성장, 활력을 상징하는 동물로 '말의 귀'를 닮은 명산 '마이산'이 위치한 진안군은 이러한 상징성에 착안해 '말의 해'와 '진안 방문의 해'를 연계한 관광 전략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지역 관광에 새로운 동력을 불어넣겠다는 구상이다.

진안군은 '방문의 해' 기간 동안 체류형 관광 확대에 중점을 두고, 다양한 여행 상품을 운영할 계획이다. 대표적으로 1박 2일 이상 머무는 체

류형 관광상품을 비롯해, 지역의 자연·치유·체험 콘텐츠를 연계한 맞춤형 코스를 선보여 관광객의 체류 시간을 늘리고 재방문을 유도할 방침이다.

또한 스마트관광 활성화 지원 사업을 통해 관광 정보 접근성을 높이고, 모바일 기반 안내 서비스와 할인·편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관광객의 만족도를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체관광 인센티브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여행사 및 단체 관광객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내 숙박·음식·체험 소비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 '고향 나들이' 사업설명회 개최

사업추진배경·방향 등 일정 공유

무주군이 지역 내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고향 나들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총 12가정을 선정했으며 29일에는 무주상상반디숲 다목적홀에서 이들을 대상으로 '고향 나들이 사업설명회'를 가졌다.

이번 설명회에는 다문화가정과 무주군가족센터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

해 △사업 추진 배경, △선정 결과 및 지원 내용, △향후 일정 등을 공유했다.

한편,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사업'은 경제적·환경적 여건으로 장기간 고향 방문이 어려운 다문화가정에 항공료 및 공항 왕복 교통비, 여행자보험료, 현지 교통비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가족 간 유대감 회복과 정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채병석 부안 신흥마을 이장, 장학금 100만원 기탁

부안군 행안면 신흥마을 채병석 이장은 지난 28일 행안면체육센터에서 열린 '2026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행사에서 부안군 인재육성을 위한 장학금 100만원을 부안군근농인재육성재단에 기탁했다.

이날 기탁식은 군민과의 희망소통대화 행사와 함께 마련돼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뤄졌으며, 채병석 이장은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채 이장은 평소 마을 발전과 주민 화합을 위해 앞장서 왔으며, 이번 장학금 기탁을 통해 지역 인재 육성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권익현 부안군농인재육성재단 이사장은 "지역 곳곳에서 이어지는 따뜻한 나눔이 학생들에게 큰 희망과 용기가 되고 있다"며 "기탁해 주신 소중한 장학금은 부안의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 뜻깊게 사용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부안=신상수 기자



코레일유통(주) 호남본부, 익산에 100만원 상당 물품 기탁

익산시는 29일 '코레일유통(주) 호남본부'로부터 1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받았다.

코레일유통(주) 호남본부는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과 복지 사각지대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나눔 활동을 나섰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익산행복나눔마켓·뱅크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서진우 본부장 직무대행은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공공기관으로서 어려운 이웃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물품을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특성에 맞는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코레일유통 호남본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은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신속하게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경기도 부천시 무주군 향우회,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기부금 300만원 전달

경기도 부천시 무주군 향우회 회원들은 지난 28일 무주군에 고향사랑기부금 3백만 원을 전달하며 훈훈한 정을 나눴다.

이날 무주군청에서 열린 기탁식에는 최용배 향우회장을 비롯한 강옥동 고문, 황진규 고문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고향 발전을 지원했다.

최용배 회장은 "출향인들에게

고향은 삶의 동력"이라며 "기부금은 고향이 발전하고 이웃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한 만큼 요긴하게 쓰이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부천시 무주군 향우회는 고향 무주를 사랑하는 30여 명의 향우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는 친목 모임으로, 고향 발전을 위한 봉사과 기부활동에 앞장서며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무주군 주민 신윤식 씨, 해마다 장학금 100만원 기탁

무주군 무주읍 주민 신윤식 씨(대한민국 6.25참전유공자회 무주군지회장)가 무주군교육발전재단에 장학금 1백만 원을 기부했다.

신윤식 씨는 "무주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이 배움에 대한 열의를 다지고 미래 꿈을 실현하는데 도움이 되고 싶어 장학금을 전하게 됐다"라며 "우리 무주에서도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이들을 응원하는 어른들의 마음이 차곡차곡 쌓여가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한편, 6.25 참전 유공자회 무주군지회를 이끌고 있는 신윤식 씨는 국가를 위한 헌신과 희생의 가치를 알리는 데 앞장서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해마다 1백만 원씩 장학금을 기부해 지역사회에 귀감이 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전주시 아중어린이집 천사들, 마음 모아 이웃사랑 실천

전주시복지재단에 라면·화장지·백미 등 후원물품 기탁

전주시 아중어린이집(원장 이영희)은 29일 전주시복지재단(이사장 윤방섭)에 소외된 이웃들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한 후원물품(120만 원 상당)을 전달했다.

이날 기탁된 물품은 아중어린이집 원아와 학부모들이 중심이 돼 추위로 어려움을 겪는 전주지역 취약계층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후원 물품은 라면과 화장지, 백미, 물티슈 등 생필품으로 구성됐으며, 전주시복지재단을 통해 인후3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아중어린이집은 매년 이러한 나눔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를 위한 기부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오고 있으며, 아이들이 나눔을 직접 경험하며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을 키울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도 이어오고 있다.

/정혜민 기자



남원 대강면 익명의 기부자 쌀 100포 기부

남원시 대강면 행정복지센터에 새해를 맞아 지역사회를 따뜻하게 하는 온정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대강면은 최근 한 익명의 기부자가 남원농협라이스센터를 통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쌀 20kg 100포를 기탁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부자는 지난 2012년부터 현재까지 14년째 단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익명으로 쌀 기부를 이어오며 지역사회에 깊은 감동을 전하고 있다.

오랜 기간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 꾸준한 나눔을 실천해온 이 기부자는 지역사회에서 '얼굴 없는 천사'로 불리며 이웃사랑과 나눔 문화 확산의 귀감이 되고 있다.

기부자는 면사무소를 통해 "작은 정성이지만 추운 겨울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을 전했다.

기부자의 뜻에 따라 기탁된 쌀 100포는 관내 기초생활수급자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 가정에 골고루 전달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한국농촌지도자 장수군연합회, 성금 200만원 기탁

(사)한국농촌지도자 장수군연합회(회장 한동근)는 지난 28일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200만원을 장수군에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전하고자 연합회 회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지역 내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사)한국농촌지도자 장수군연합

회는 농업·농촌 발전을 선도하는 지역 대표 단체로서, 평소에도 농촌 현장에서의 역할을 넘어 지역사회 공헌과 이웃사랑 실천에 꾸준히 앞장서고 있다.

한동근 회장은 "작은 정성이지만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성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기반으로 한 단체로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완주 고산면 백운사, 이웃돕기 성금100만원 전달

완주군 고산면 백운사(주지스님 김범공)가 지난 28일, 고산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지역 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한 이웃돕기 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성금 기탁은 지난해에 이어 이어진 나눔 실천으로, 백운사는 지역사회를 위한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영남지역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성금 100만 원을 기탁하며,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도 따뜻한 위로의 손길을 전한 바 있다.

김범공 주지스님은 "추운 겨울,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힘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눔을 이어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지숙 고산면장은 "매년 이웃사랑을 실천해 주시는 백운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기탁해주신 성금은 도움이 꼭 필요한 이웃들에게 투명하고 소중하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 기자

겨울철 운전시 블랙 아이스 예방법



〈一事一言〉



산업 입지의 새 기준, 국제에너지 도시로 가는 전북

김관춘
주필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던진 한 문장이 전북의 미래 전략을 다시 묻고 있다. “앞으로는 재생에너지가 잘 준비된 지역으로 기업이 찾아갈 것이다”라는 발언은 산업 입지의 방향을 현실을 짚은 진단이다. 에너지 가격과 공급 안정성이 곧 국가 경쟁력으로 직결되는 시대, 전북자치도가 새만금 일원을 국제에너지 도시로 시급히 조성해야 한다는 과제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에 가깝다.

이 문제의식을 가장 선명하게 제기해 온 인물이 국회 이원택 의원이다. 이 의원이 제안한 ‘국제에너지 도시’ 구상은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생산을 토대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이를 기반으로 관련 기업과 연구소, 교육기관을 집적시키는 장기 전략이다.

단순히 발전 설비를 늘리는 차원이 아니라, 에너지 생산-산업 활용-인재 양성-정주 여건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발언은 이 같은 구상이 공상이나 지역 논리가 아니라 국가 차원의 현실적 대안임을 분명히 했다.

대통령은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대규모 전력 수요 산업의 입지 조건으로 재생에너지 기반과 에너지 가격 경쟁력을 명확히 언급했다. “재생에너지가 많은 지역, 에너지가 싼 지역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말은 산업 입지가 더 이상 정치적 고려나 관행으로 정해줄 수 없다는 선언이다.

이러 “기업 입지는 경제적 요건을 만들어 유도해야 한다”고 강

조한 대목은 국제에너지 도시 조성이야말로 기업 유치의 가장 현실적인 해법임을 뒷받침한다. 값싼 땅, 합리적인 인건비, 안정적인 전력, 세제 혜택, 교육과 주거 인프라까지 갖춘 곳으로 기업이 이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장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특히 반도체, 데이터센터, 이차전지, 수소 산업 등 첨단 산업은 막대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지 못하면 입지 자체가 불가능하다. 탄소중립 규제와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전력은 선택적 요소가 아니라 필수 요건이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광활한 부지와 해상·육상 재생에너지 잠재력을 동시에 갖춘 새만금은 국제에너지 도시로서 최적의 입지 조건을 갖췄다. 이미 조성된 산업 단지, 항만과 공항 접근성, 국가 주도의 개발 체계까지 고려하면 새만금은 ‘준비된 공간’에 가깝다.

국제에너지 도시의 핵심은 에너지 가격 경쟁력이다. 재생에너지를 대규모로 생산·집적하고, 이를 산업 현장에 직접 연계함으로써 기업의 전력 비용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다. 여기에 에너지 저장장치, 스마트그리드, 수소 전환 기술 등이 결합되면 안정성과 효율성은 더욱 높아진다.

에너지가 싸고 안정적인 기업 입지는 스스로 찾아온다. 대통령이 언급했듯 “에너지도 싸고, 세금도 깎아주고, 교육시설도 만들어주는 식”의 종합 패키지가 갖춰질 때 지방 이전은 구호가 아니라 현실이 된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국제에너지 도시가 전북만의 지역 개발을

넘어 국가 전략이라는 사실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5극 3특 시대의 균형 성장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도권이 아닌 곳에 새로운 성장 엔진을 심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전북이 그 거점이 된다면, 이는 대한민국 산업 구조 전환의 시험장이자 성공 모델이 될 수 있다.

이원택 의원이 강조하듯 관련법 개정과 제도 정비, 조례 제정을 통해 기업·연구·교육기관을 집적 유치한다면 전북은 에너지 소비 지역이 아니라 에너지 산업 선도를 하는 생산·혁신 지역으로 도약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국제에너지 도시는 지속가능한 미래에 대한 투자다.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로의 전환은 더 이상 선언적 목표가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다. 이 흐름을 선도하느냐, 뒤따라느냐에 따라 지역과 국가의 명운이 갈린다.

새만금 국제에너지 도시 조성은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마련하는 동시에, 대한민국이 에너지 전환과 산업 경쟁력을 함께 확보하는 길이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기회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로 넘어간다. 에너지가 곧 산업이고, 산업이 곧 지역의 운명인 시대다. 전북 새만금을 국제에너지 도시로 키워야 할 이유는 이미 충분하다.

다만 국제에너지 도시 조성은 선언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속도와 실행력이 관건이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함께 전력 계통 보강, 송배전 인프라 확충, 에너지 저장 기술 고도화가 병행되지

않으면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이라는 목표는 공허한 구호에 그칠 수 있다.

중앙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공공기관의 선제적 이전, 민간 투자를 끌어낼 수 있는 규제 혁신 역시 필수적이다. 새만금이 규제 완화와 실증 특례가 가능한 에너지 특구로 자리 잡을 때 국제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할 수 있다.

아울러 에너지 산업과 지역 사회가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다. 국제에너지 도시는 기업만을 위한 공간이 아니라, 지역 인재가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는 삶의 터전이 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에너지 특화 대학과 연구기관을 연계한 인재 양성 체계, 문화·의료·교육이 어우러진 정주 여건 조성이 병행되어야 한다. 에너지 전환의 성과가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때 국제에너지 도시는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명확한 방향 설정과 흔들림 없는 추진이다. 준비된 곳으로 기업이 간다는 대통령의 말처럼, 전북이 먼저 준비해 기업이 찾아오는 에너지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을지, 그 답은 지금의 결단과 실천에 달려 있다.

사설

문화도시 전주, MICE 산업으로 세계와 만나라

전주시가 ‘글로벌 마이스·비즈니스 이벤트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지난 27일 라한호텔에서 열린 ‘제1회 전주 MICE Day’는 단순한 행사 차원을 넘어, 전주가 지향하는 도시 성장 전략의 방향을 분명히 보여준 자리였다. 2029년 전주컨벤션센터 개관을 앞두고 지역 MICE 산업의 가능성과 과제를 점검하고 국내외 전문가들과 해법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다.

MICE 산업은 단순한 전시·회의 유치를 넘어 도시 경쟁력을 좌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이다. 대규모 방문객 유입은 숙박·관광·외식·교통 등 연관 산업 전반에 파급효과를 미치고 장기적으로는 도시 브랜드 가치를 끌어올린다.

이런 점에서 전주시가 전주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한 MICE 복합단지를 미래 성장동력으로 삼은 선택은 늦었지만 옳다. 중요한 것은 하드웨어 건설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어떻게 도시 전략과 결합시키느냐다.

이번 MICE Day에서 전주시가 한국 전시산업진흥회, 한국MICE협회, 한국PCO협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한 것은 긍정적이다. 기관 간 교류와 공동사업, 국내외 행사 유치 협력은 전주가 MICE 시장에서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 잡는데 필수적인 기반이다.

또한 ‘목적지 마케팅 전략’, ‘컨벤션센터와 지역 커뮤니티의 결합’, ‘도시 내 협력을 통한 국제회의 창출’ 등 전문가들의 제안은 전주가 단기간 성과에 집착하기보다 중장기적 비전을 세워야 함을 시사한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주만의 강점을 어떻게 MICE와 연결할 것인가에 대한 논

의다. 전주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유산, 미식과 관광 자원을 동시에 갖춘 도시다. 이를 MICE 산업과 유기적으로 엮어 ‘전주형 마이스 레거시’를 창출하지 못한다면 전주컨벤션센터는 또 하나의 시설로 남을 공산이 크다.

아울러 전주가 글로벌 MICE 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차별화된 콘텐츠 개발과 지속 가능한 운영 전략이 병행되어야 한다. 단발성 행사 유치가 그치지 않고 정기적 국제회의와 전문 전시회가 이어질 수 있도록 분야별 특화 전략을 세워야 한다.

전통문화·한식·슬로시티 이미지와 첨단산업, 창업·기술 포럼을 결합한 융복합 MICE는 전주만의 경쟁력이 될 수 있다. 국제회의 참가자들이 회의장 밖에서도 전주의 정체성을 경험하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기억하게 만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컨벤션센터 운영, 행사 유치, 인재 양성, 지역 기업과의 연계까지 하나의 전략으로 묶어야 한다. 지역 대학과 연구기관, 문화·관광 업계가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축도 필수적이다. MICE 산업은 혼자서 키울 수 없는 산업이며 도시 전체가 함께 움직일 때 경쟁력을 갖는다.

이제 남은 과제는 선언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다. 전주컨벤션센터를 중심으로 산업과 문화, 관광이 어우러진 전주형 MICE 모델을 만들어 간다면 전주는 지방 중소도시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비즈니스 이벤트 도시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꾸준함과 전략적 추진력을 기대한다.

오늘의시

저 창살에 햇살이 / 김남주

내가 손을 내밀면
내 손에 와 고운 햇살
내가 불을 내밀면
내 불에 와 다순 햇살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자꾸자꾸 자라나
다람쥐 꼬리만큼은 자라나
내 목에 와 감기면
누이가 짜준 목도리가 되고
내 입술에 와 닿으면
어머니가 씌어주고는 했던
사각사각 베어먹고 싶은
빨간 홍당무가 된다.

시인 약력 : 1946년 전남 해남 출생. 1969년 검정고시를 거쳐 전남대 영문과에 입학했다. 1972년 유신 헌법이 선포되자 지하신문인 ‘함성’을 제작했다. 이 사건으로 전남대에서 제적당했다. 창작과 비평지에 ‘진혼가’, ‘갯더미’ 등 7편의 시를 발표했다. 1978년 남민전에 가입, 활동하다 1979년 서울에서 체포되어 구속됐다. 복역 중 첫 시집 ‘진혼가’, ‘나의 갈나의 피’, ‘조국은 하나다’ 등을 출간했다. 1988년 형 집행 정지로 9년 3개월 만에 석방됐으나 1994년 사망, 광주 5.18 묘역에 안장됐다.

독자광장

음주운전과 방조행위의 위험성



뉴스를 보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많이 보게 된다. 목숨을 건 음주운전의 위험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실제로 대부분의 운전자는 자신이 마신 음주량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는 경향이 강하다. 실제 마신 양보다 적게 마셨다고 생각하거나 운전이 지장이 없을 정도라고 마셨다고 착각을 하게 된다. 그러나 마신 술의 양과 관계없이 음주 후 핸들을 잡는 행위는 목숨을 담보로 한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실제 있었던 일이다. 후배와 갈



이 술을 마시다가 후배가 집에 잠깐 갔다 오겠다고 하자 자신의 자동차열쇠를 빌려줬다. 후배는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차량 두 대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냈고, 무심코 자동차열쇠를 빌려준 선배는 음주운전 방조혐의로 역시 기소된 일이 있었다. 이처럼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음주운전 공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 술 취한 일행에게 자동차열쇠를 건네주는 행위가 범죄라는 인식이 부족하지만, 이 같은 행위는 형법상 방조범 규정에 따라 처벌되는 범죄행위를 알아야 한다. 신체에 알코올이 흡수되면 안전운전을 위한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두뇌 작용이 느려져 신속하고 정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게 되며, 잘못된 자신감을 갖게 하여

상적으로 하기 어렵게 만든다. 가장 위험한 건 자칫 음주운전으로 이어질 수 있어 큰 사고가 난다는 것이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음주운전, 그리고 방조행위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임을 다시 한 번 명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전주완산경찰서 화산지구대 경위 이진재

문화재열전



개암사 석가여래삼존불좌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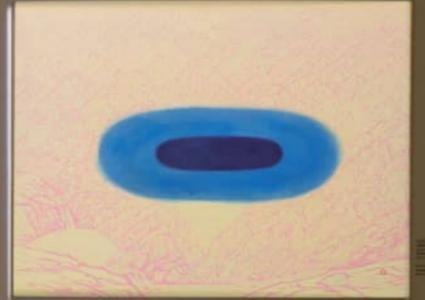
- 분류 - 유물, 불교조각, 목조, 불상
- 지정일 - 2023년 7월 21일
- 시대 - 조선시대
- 소재지 -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714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가-00022(발간) 우)54990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www.jeonbuktimes.co.kr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무지국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베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8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 2025년 관람객 18만명 돌파



함파우 예술특화지구 핵심 거점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2025년 한 해 관람객 18만 명 이상이 방문하여 남원시를 대표하는 공공문화시설로서의 위상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이는 2024년 16만 명 대비 큰 폭의 증가로, 인구 약 7만 명 규모의 중소도시 공립미술관으로서는 이례적인 성과다.

지난 12월 실시한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관람객 증가의 핵심 요인은 미술관 건축과 자연환경의 조화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

요인이 양질의 전시와 교육 프로그램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미술관은 기획전·상설전에 아카이브 콘텐츠를 유기적으로 엮어 운영하는 한편, 전북도립미술관 협력전을 함께 선보여 전시의 다양성과 완성도를 높였다. 여기에 교육동 '꿈'과 생태놀이터 '마음은 콩밭', 그리고 수장고 확충을 통해 전시-교육-소장품 관리가 균형 있게 성장하는 운영체계를 구축했다.

미술관 전시는 전북도립미술관 협력전 <낮익은 도시, 낯선 이야기> (41,000명), 춘향제 유네스코 등재를 위한 기획전 <기록의

방, 춘향의 시간> (45,000명), 도립미술관 공동전시 <미지의 방랑자> (60,000명)와 김병중 작가의 예술세계를 조명한 소장품 기획전 <오상아(吾喪我), 나는 나를 잃어버렸다> 등 지역성과 동시대성을 아우르는 전시를 선보였다.

교육동 '꿈'은 전라북도과 지리산 권역을 아우르는 시각예술 교육·체험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다. 2025년 한 해 159회 프로그램에 총 2,475명(유아 874명, 초등 685명, 중·고등 297명, 성인 619명)이 참여했으며, 실감미디어 전시실에서는 소장품을 기반으로 한 미디어

아트 전시 <수류화계>를 선보이며 회화와 기술이 결합한 새로운 관람 경험을 제시했다.

또한 2025년 12월 수장고 증축을 완료해 소장품 보관 공간을 확충하고 정리·보존 체계를 정비했다. 이를 통해 소장품 관리의 전문성과 운영 효율성을 한 단계 높여갈 계획이다.

2026년에는 남원시가 제정한 '김병중 미술상' 제1회 수상자 윤진미 작가 개인전과 해외 작가전, 소장품전 등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세계와 소통하는 미술관의 발판을 마련하는

한편 미술관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보다 쾌적한 문화 공간으로 거듭날 계획이다. 현재는 <오상아> 전시가 진행 중이며, 전시 기간은 다음 달 22일까지이다.

허정선 관장은 "남원시립김병중미술관은 남원시가 추진 중인 '함파우 예술특화지구(아트밸리)'의 거점 시설로서, 향후 조성될 '남원현대미술박물관(가칭)'과 '남원도자전시장(가칭)' 등과의 연계를 통해 지역 문화 생태계를 확장하고, 시민과 방문객의 문화 향유 기반을 지속적으로 넓혀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남원=정하복 기자



군민의 뜻을 대변하는 의회

임실군의회